

# Style 조선일보

MAY 2015 vol.125



**Ermenegildo Zegna**  
COUTURE



TO BREAK THE RULES,  
YOU MUST FIRST MASTER  
THEM.

주요 계곡, 천년의 척박함, 혹독한 환경 : 1875년 르  
브라수스의 마을에서 오데마 피게는 태동했고, 초  
창기 워치메이커들은 이곳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신비로움을 마스터하기 위한 그들  
의 노력은 복잡한 기술력들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선구자적인 정신은 파인 워치  
메이킹의 전통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로열 오크  
오프쇼어  
핑크 골드와 세라믹  
크로노그래프

AUDEMARS PIGUET  
*Le Brassus*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49-5917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372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02)3484-9645  
롯데면세점 소공점 02)759-6641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1222  
위커피면세점 02)450-6548  
롯데면세점 제주점 064)731-4482



48



47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2015 S/S 에르메네제오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피라티의 광고 캠페인이다. 스트라이프 패턴과 다양한 색상, 질감을 조합한 의상에는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 아래 크라이티브 디렉터 스테파노 피라티가 완성한 멋진 실루엣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의 02-518-0285



30



08

- 12 **우리를 집중하게 해주는 것들** 우리가 일을 할 때 궁극의 몰입은 아닐지라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의외로 사소한 사물이나 환경이 우리의 집중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사물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다.
- 14 **THE JEWEL**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데일리 주얼리와 클래식한 멋을 지어내는 워치 컬렉션을 눈여겨보자.
- 18 **THE FASHION for her** 여기, 까다로운 그녀의 취향을 만족시키면서 가격대가 비교적 합리적인 5월의 패션 아이템을 준비했다. **for him** 때론 클래식하게, 때론 트렌디한 룩을 즐기는 그의 취향을 고려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선물 리스트.
- 22 **THE BEAUTY** 사랑하는 이들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란다면? 연령대와 취향을 배려한 뷰티 기프트 컬렉션을 준비해볼 것.
- 24 **THE OUTDOOR** 선물의 품격과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골프 & 아웃도어 아이템.
- 26 **THE LIFESTYLE** 오래도록 선물을 이룰 떠올리며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라이프스타일 선물 제안.
- 28 **MODERN LIFESTYLE** 1백50여 년간 지켜온,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라는 브랜드 철학이 보여주듯,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존 루이스의 리빙 컬렉션.
- 30 **HEAVENLY MOMENTS** 눈부신 태양을 품은 계절, 강렬한 디테일과 클린한 실루엣, 그리고 칼빈의 시크한 백이면 충분하다.
- 38 **URBAN SPORTIVE** 실용적이고 액티브한 럭셔리 시티 웨어, 명품 스포츠의 2015 S/S 컬렉션과 함께 멀티 라이프를 즐기자.
- 40 **ULTRA MODERN** 과연 시계 예술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리처드 밀의 새로운 컬렉션에 주목하라.
- 41 **CRUSH ON YOU** 사별 화인 주얼리에서 새롭게 탄생한 현대적인 주얼리 컬렉션 코코 크라쉬.
- 42 **PERFECT GAME** 모던한 디자인과 특정한 내구성을 모두 담은 제이 린드버그의 골프 백으로 봄철 라운딩을 만끽하라.
- 43 **TIMELESS SHOES**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한 디자인과 유연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스페인 핸드메이드 슈즈 브랜드 로투세.
- 44 **HIGH-PREMIUM** 인센로랑 뷰티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컬렉션 오 후즈(Or Rouge)가 긴 여정을 마치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 45 **SENSUAL BEAUTY** 디자이너 톰 포드만큼 섹시한 남자가 또 있을까. 섹시한 그를 담은 매혹적인 톰 포드 뷰티 코즈메틱.
- 46 **EDITOR'S PICK** 여름이 오기 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바빠르게 체험해본 뷰티 컬렉션.
- 47 **A BEAUTIFUL JOURNEY** 아모레퍼시픽의 고유한 감성과 헤리티지를 경험하기 위해 떠난 아름다운 여행.
- 48 **베트남의 우아하고 사려 깊은 호텔들**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은 베트남이다. 베트남 역사와 낭만을 집약한 각 도시의 이국적 호텔로 당산을 초대한다.



THE THINNEST  
TOURBILLON  
MOVEMENT  
IN THE WORLD

# BVLGARI

## OCTO

*finissimo*

TOURBILLON

스위스에 위치한 불가리 타임에서는 고난도의 워치 제작 기술로 최고의 컴플리케이션 워치 까지도 모두 인하우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옥토는 팔각형 케이스로 강렬함과 카리스마로 차별화되며 남성 워치를 지배해 온 전통적인 기준들을 초월합니다. 완벽함을 상징하는 이 팔각형 케이스의 110개 면은 모두 수공 브러싱과 폴리싱으로 마감되었으며, 불가리의 자사 크로노그래프 메카니즘의 무브먼트는 완벽한 규칙성과 정밀함을 구현합니다.

«Details make perfection,  
and perfection is not a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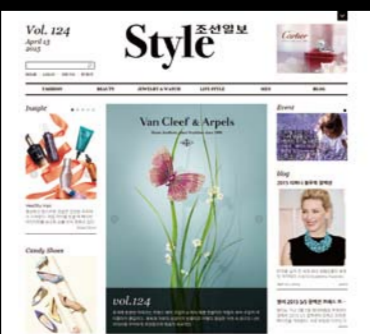
Leonardo da Vinci

BVLGARI.COM

# Style

조선일보

Issue.125 May 2015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Jewel DREAMING YELLOW

1만 개 중 단 1개만이 발견되는 옐로 다이아몬드. 따뜻한 햇살과 같은 아름다운 컬러를 입은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피어난 꽃꽃과도 같이 사랑스러운 마력을 품은 인챈트 링 4천5백만원대, 플래티넘에 옐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칼라이도스크프 키 컬렉션 펜던트 3천9백만원대, 옐로 다이아몬드를 심플하게 세팅한 배켓 펜던트 2천4백만원대 모두 **타파나**, 옐로 다이아몬드를 오방형으로 볼륨감 있게 세팅한 링 가격 미정 **블가리**,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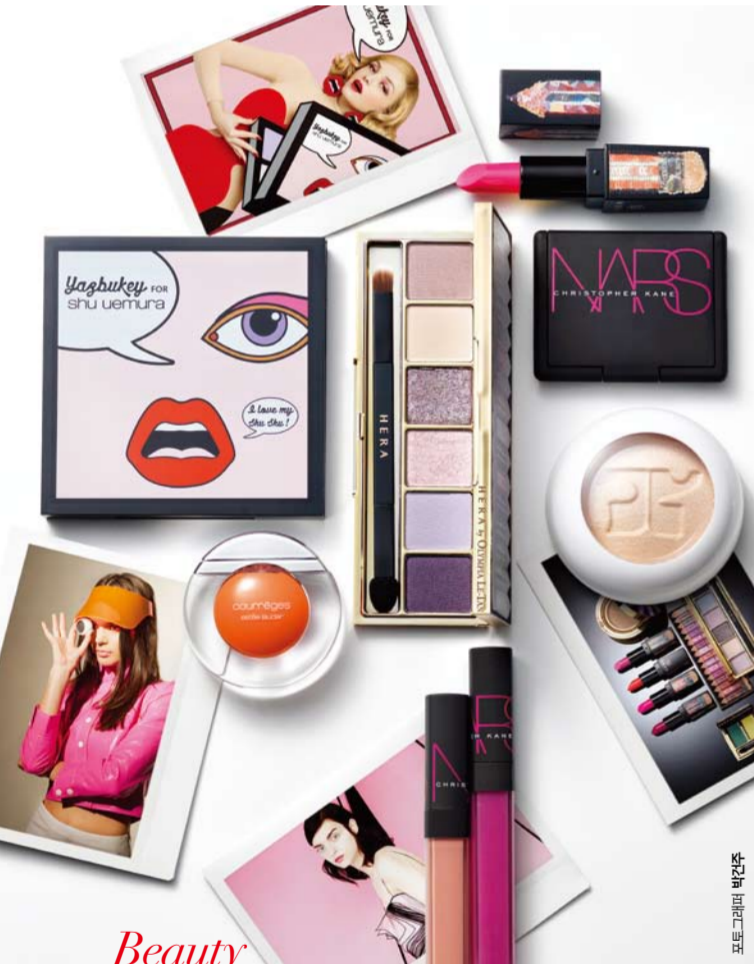
포토그래퍼 박민주



### Fashion CHARMING CHARMS

가방 하나 가격과 맞먹을 만큼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판다는 펜디의 백 백스를 대표 주자로, 가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참 장식이 새로운 액세서리 카테고리로 등장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만큼 7개가 넘는 참 장식을 단 패션 피플도 등장했으나 대세원은 분명하다. 맨 앞줄 왼쪽부터 차례대로 **백 백스** 백 참 1백만원대, **칼리토** 백 참 2백35만원 모두 **펜디**, **말 모티브**의 백 참, **오렌지 컬러** 70만원대, **버건디 컬러** 6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태슬 장식** 키 링 40만원대 **캘리그라피** **다이아 by 블라쉬**, **가방에 달린 더욱 예쁜** **왕자 네트리스** 6만9천원 **스튜디오 샵스**, **0125** 줄 왼쪽부터 차례대로 **블루 피카피** 백, 33x26cm, 4백27만원, **마이크로** 백 백스 바 게트 백, 13.5x8.5cm, 1백77만원, 모두 **펜디**, **슈퍼 히어로** 키 링 23만원 **스텔라 매카트니 by 펜디**, **일회 모양의** 키 링 3만4천원 **에어리 웨이브 by 비커**, **마니** 칼리토 백 참 1백36만원 **펜디**, **로프 형태**의 가죽 키 링 가격 미정 **로에에 by 펜디**, **토티움** 가죽 락킵 백, 27x40cm, 4백만원대 **루이 비통**, **로봇** 키 링 26만원 **프라다**, **애-멜** 참 10만원대 **MCM**, **트라이앵글** 마스크 라그 피 태고 44만3천원 **루이 비통**, **새 모티브**의 백 참 31만원 **토즈**, **악어** 가죽 이-샬링 38만원 **콜롬보 바이 델라 스피카**, 에디터 **권유진**

포토그래퍼 박민주,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 Beauty HAPPY TOGETHER!

하루보다는 돌, 함께하면 사나지 효과를 특별히 발휘하는 뷰티와 패션의 컬래버레이션 소식. 이미 칼라기젤트를 비롯해 무라카미 다카시 등 아티스트들과 꾸준히 협업해온 슈에무라가 액세서리 디자이너 이즈부키와 손잡았다. 최근 SNS와 블로그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통할 만큼 핫한 입술 클러처 백과 앤디 워홀, 메릴린 먼로처럼 유명인을 팝아트 일러스트로 콜라주 액세서리 모두 그녀의 작품. 이렇게 독특하면서 평범한 이즈부키의 상황을 그려낸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하루같이 장난기가 가득하다. 빈티지 북, 시그널 박스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클러처를 제작해 패션 피플들의 워시 리스트에 오른 올림피아 르 뱅은 또 어떤가. 해와 합안한 올림피아 르 뱅은 이번 시즌 시그너처인 크레용 패턴을 제품에 담았다. 컬렉션에서 선보인 크레용 패턴 컬러 화이트와 캄캄한 블랙 민콩이나 시글스같은 아이 컬러 여성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1960년대에 미니멀리즘과 스페이스 룩을 창조한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와 에스티 로더는 미래적인 에이프릴 스킨을 제공한다. 기 존의 에스티 로더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쿠레주만의 미니멀한 실루엣과 투명한 비닐 소재를 담은 패키지가 무엇이든 매력적인 굿즈를 불러온다. 베르사체를 거쳐 현재는 자선천의 레이블로 영국의 패션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케인은 도연한 메이크업의 산두 주자 나소에 새로운 옷을 입혔다. 케인 코드라 불리는 네온과 뉴트럴 컬러 조합이 반영된 제품은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할 것. 에디터 **배미진, 김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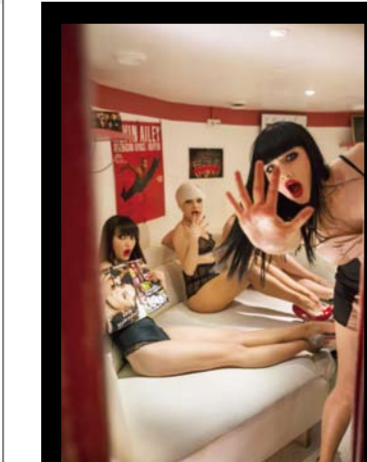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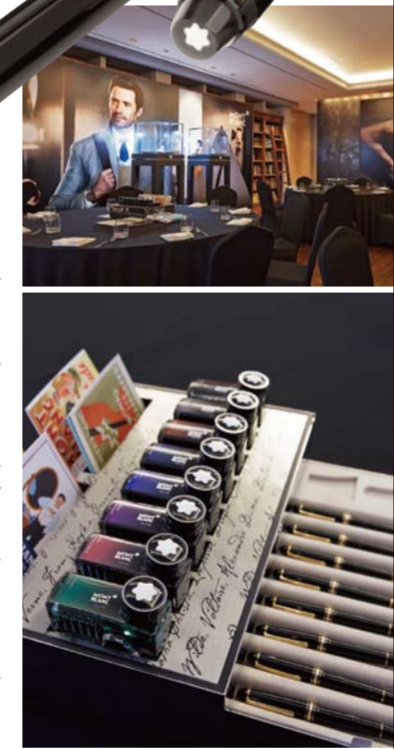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이러브 미이 슈슈 팔레트, 12g, 8만5천원대 **슈에무라**, 올림피아 르 뱅 컬렉션 아이 팔레트 2g x 6 만5천원대, 올림피아 르 뱅 컬렉션 루즈 홀릭 스위트 핑크 3g 3만5천원대 모두 **해라**, 크리스토퍼 케인 스타스케이프 블러셔, 4.5g, 4만원 **나소**, 쿠레주 컬렉션 알루미네이션 페이스 파우더, 7g, 6만5천원대 **에스티 로더**, 크리스토퍼 케인 글로우 핑크, 뉴클러스 각 6ml, 3만6천원 **나소**, 쿠레주 컬렉션 림 바이저 코랄, 10ml, 3만5천원대 **에스티 로더**.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Event THE ART OF WRITING

최근에 손글씨를 쓴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지만, 손글씨를 써넣은 엽서를 빨간 우체통에 넣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답장을 손꼽아 기다리던 과거의 따뜻했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것은 비단 에디터뿐만은 아닐 것이다. '손 글씨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만년필, 그리고 만년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연 브랜드 몽블랑이다. 1백여 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장인 정신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아트 오브 라이팅'(art of writing)을 실현해온 몽블랑은 고급 필기구 수집가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의 제품, 주얼리 만년필까지 다양한 필기구를 선보이고 있다. 글씨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브랜드 철학과 함께 손글씨가 주는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지난 4월, 몽블랑은 대표 필기구를 이용해 직접 글씨를 써보는 아트 오브 라이팅 행사를 진행했다. 캘리그래피 작가 이상현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잉크가 번지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느끼고, 만년필로 글씨를 사자마자 써 내려가는 재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이날 사용한 몽블랑의 신제품 '스타워커 어반 스피드'는 빨간색 라인의 남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스크래치, 화학 제품 등에 강한 PVD 코팅 소재를 사용한 이 제품은 힘이 느껴지는 사용감까지 더해 대담한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좋은 동반자가 되어 줄 것. 또 전설적인 마스터 스틱 만년필은 묵직하게 잡히는 느낌과 부드러운 필기감이 단연 으뜸이다. 단연 칸대 만년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일지라도 몽블랑의 제품을 써보는 순간,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김을 만큼 매력적이다. "맛있게 쓰는 것이 아닌 진실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캘리그래피 작가 이상현의 말처럼 몽블랑의 특별한 필기구를 이용해 사용하는 이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옮겨보자. 이는 그 어떤 방식보다 진심을 그대로 전달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문의 02-2118-6053 에디터 **권유진**



### Performance (크레이지호스 파리), 아트 누드 퍼포먼스의 진수를 보여준다

"우리는 결코 벗지 않았다. 빛과 색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결코 하얀처럼 들리지 않는 65년 전통의 아트 누드 퍼포먼스 (크레이지호스 파리)(Crazy Horse Paris)가 한국에 상륙했다. 1951년에 시작되어 65년간 전 세계적으로 1천5백만 명을 우뚝한 공연으로 몰랑루주, 리도와 함께 파리 3대 소로 꼽힌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다는 크레이지 걸스로 불리는 여성 댄서들이 관능적인 춤을 추는 데, 외설적이기 보다는 고취적이고 경쾌하기까지 하다. 여성의 나체가 마치 캔버스가 된 듯 그 우를 역동적으로 누비는 조명이 묘하게도 화화적인 매력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여성을 상품화해 상업적이라는 비평도 듣지만, 직접 인유에도 참여한다는 댄서들이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더 지지한다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나옌이 외츠, 비온세, 크리스티나 아우렐리아 등 스타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일부는 크레이지 걸스와 컬래버레이션을 하기도 했다. 서울 공연에서는 '태양의 서커스'로 유명한 인구가 필립 드쿠렐레가 재구성한 오르자넬 작품을 선보이는데, 파리에 비해 규모가 크고, 영국적인 레퍼토리로 이루어졌다. 영국 왕실 근위대를 소재로 한 군무 같은 오프닝부터 슬비노르 델리외의 사뵘간 입술 소프라를 재현한 에피소드 등 색다른 구성으로 지루함을 덜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 등장한 실용 문화를 재현하듯 레드 벨벳으로 단정된 의자에 앉아 감상할 수 있다. 프랑스 대문로 스타들의 표현처럼 '행복한 소수로서 창힐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기묘한 듯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워커힌 시아터에서 열린다. 문의 [www.crazyhorseparisinsoul.com](http://www.crazyhorseparisinsoul.com) 에디터 **고성연**

ysbeauty.com, 소비자 상담실 080-347-0089



**OR ROUGE**  
오 후즈

진귀함, 그 이상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신들의 꽃-사프란이 선사하는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

**YVES SAINT LAURENT**



프랑스 태생의 건축가 장 프루베가 디자인한 견고하고 실용적인 2단 선반 1백53만원 **비트라**.



모던한 스톱 그레이 컬러의 세라믹 스푼, 포크, 나이프 각 9천원 **존 루이스**.



현대적인 동시에 몽환적인 느낌을 내는 나무와 종이 소재의 샹들리에 5백만원대 **모오이 by 웰즈**.



직물 패턴을 넣는 느낌에 베이커이 두꺼운 플라스틱 3단 선반 1백만원대 **대원퍼릭스**.

# for her Selection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며 대화와 소통의 중심이 되는 다이닝 공간. 여자를 위한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다이닝 룸 셀렉션.

photographed by sim yun suk



시작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구름 형태의 플로어 조명 3백만원대 **벨룩스 by 비트라**.



그릇과 커튼리 보관함만 아니라 다양한 수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만점의 트롤리 4백만원대 **아르텍 by 에이후스**.



단단한 너도밤나무 소재에 손잡이 부분을 화이트로 패인릴한 조리 도구 세트 3만원 **칸트**.



광택이 뛰어난 붉은 구리 소재의 20cm 소스 팬 65만7천원 **모비엘 by 하농조르다노**.



나무와 밝은 색 가죽 소재가 고급스러운 사이드 보드. 내부에 회전하는 원반이 있어 수납한 재물을 쉽게 꺼낼 수 있다. 3천만원대 **조르제티 by 인피니**.



화이트소스 볼과 샤프 보드 세트 구성으로 빵과 치즈, 버터, 혹은 정을 함께 내기 좋다. 5만원 **칸트**.



우유나 주스를 담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세라믹 보틀 3만4천원 **메누 by 에이치퍼릭스**.



화이트와 레드, 두 가지 컬러만 사용해 심플한 형태를 부각한 도자 물 8만원대 **아리타 재팬 by MM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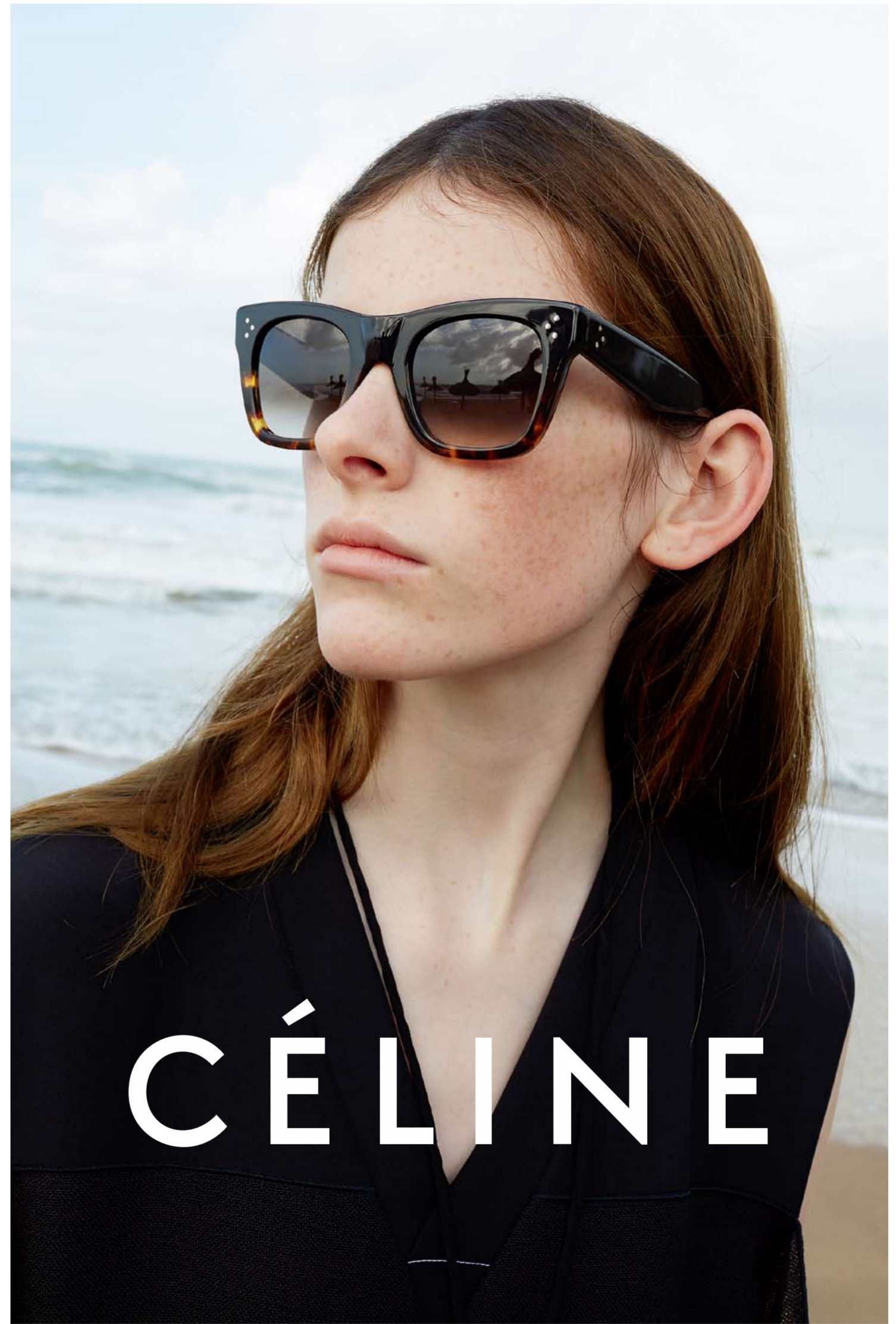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수납 칸과 오픈형 수납 칸으로 구성되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컬러 조합이 아름다운 3단 수납장 1천8백만원대 **비트라**.



시트 위에 등받이를 삼킨 형태와 개성적인 의자로 컬러가 다양하다. 60만원대 **무투 by 라골레트**.

전통 장수호리병 컬렉션(노스) 스타일리스트 김미리(고정영) by 에디터 김유진



# CÉLINE

촬영: 리아 East | 스타일: 김미리 | 헤어: 김유진 | 메이크업: 김유진 | 모델: 김유진 | 장소: 서울, 서울

- 대원퍼릭스 02-701-2751
- 라골레트 02-548-3467
- 비트라 02-511-3437
- 존 루이스 02-310-5379
- 에이치퍼릭스 070-4656-0175
- 에이후스 02-3785-0860
- 웰즈 02-511-7911
- 인피니 02-3447-6000
- 칸트 1599-7299
- 하농조르다노 02-515-2626
- MMMG 02-549-1520

매트한 블랙 비트  
팬데트는 내부의  
브라스 컬러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70만원대 화이트  
사이즈 톨릭스 by  
두오모라이팅.

매트한 재질과 컬러가  
특색인 유리탄 테이블 웨어  
세트 15만9천원  
존 루이스.

회전이 가능하며 트레이가 달린 크롬 소재의 테이블은  
1928년에 디자인된 제품으로, 모던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5백만원대 클래시론 by 가구솔인엔.

직사각형의 블랙 플레이트와 사이즈가 작은 붉은 포슬린  
슬레이트 소재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플레이트  
3만9천원, 볼 2만3천원 레볼 by 선우실업.

# for him Selection

요즘 대세로 떠오른 요리하는 남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다이닝 공간  
아이템. 섬세한 듯 세련되고 감각적이지만 동시에 강인한  
맛을 풍긴다. *photographed by sim yun suk*

부드럽게 벤딩된 등받이가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다이닝 체어 19만원대  
론 by 라플렉드.

일부러 불에 태운 것처럼 어두운 스톱모크 컬러가 아름다운  
다이닝 테이블 4백8만원 엔트레디션 by 이노베싸.

내용물을 넣는 칸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손잡이를 내려  
쟁반으로도 사용 가능한  
멀티 바스켓 24만원  
매뉴 by 에이치퍼픽스.

한 시대를 풍미한  
알레산드로 멘디니  
디자인의 와인  
오프너 10만원  
알레시 by  
에잇일러스.

깨끗하고 단순한 라인이  
돋보이는 커피잔과 받침  
각 4만15천원, 2만원 이도.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에 기 스키가  
디자인한 튜링 달린 블랙 주름  
프라이팬 5만9천원 칸토.

나무 등받이와 패브릭  
시트, 금속 다리 등  
각기 다른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다이닝  
체어 1백7만원  
(소재, 컬러, 옵션별로  
가격 상이) 비트라.

정사각형 상판을 원통형  
받침이 견고하게 받치고  
있는 비스트로 테이블.  
실내용 1백30만원대, 야외용  
1백60만원대 비트라.

유선형의 형태가  
독특한 화이트  
컬러의 토스터  
31만원 부기티 by  
SGS 플러스.

정사각형 상판 (비스트로)  
수납형 바스켓 (에이치퍼픽스)

문을 수납장 측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 미치 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미. 절한 디자인의 그릇 수납장 2천만원대 막살토 by 인피니.

가구솔인엔 02-3446-5103  
두오모라이팅 02-516-7083  
라플렉드 02-548-3467  
비트라 02-511-3437  
선우실업 031-793-4143  
존 루이스 02-310-5379  
에잇일러스 070-8654-3637  
에이치퍼픽스 070-4656-0175  
이노베싸 02-3463-7710  
이도 02-517-0756  
인피니 02-3447-6000  
칸토 1599-7299  
SGS 플러스 02-707-4920



라코스테 디지털 플래그십 Lacoste.co.kr

LIFE IS A BEAUTIFUL SPORT LACOSTE 



# 우리를 집중하게 해주는 것들

세계적인 심리학자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박사는 집중하는 것이 더 괴롭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은 인간이 집중하지 못할 때 상대적으로 더 불행하다고 했다.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가 한곳에 집중되는 '몰입(flow)'을 빈번히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대부분 한번 제대로 경험하면 그런 상태를 갈망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것처럼 궁극의 몰입은 아닐지라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의외로 사소한 사물이나 환경이 우리의 집중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다. 일의 생산성을 높여줘 행복 지수도 사뭇히 올려줄 나만의 촉매제가 무엇일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때때로 우리를 어떤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혹은 그 일을 조금은 더 좋아하도록 만드는 물건이나 환경이 있다. 그 물건이 심지어는 평범한 주전자일 수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디자인으로 유명한 영국 디자이너 제스퍼 모리슨이 만든 독일 브랜드의 전기 주전자를 끄찍이 아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사실 접촉 불량 때문인지 꽤 자주 고장이 나는데도 그 주전자가 부엌에 있으면 왠지 주방 일이 즐거워요. 그래서 쉽게 망가지는데도 몇 번이나 다시 샀죠." 흰색과 은회색의 깔끔한 조화와 더불어 세련미를 연출 풍기는 디자인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물 끓이는 단순한 작업을 해내는 기계에 대한 애정으로는 좀 과하다고 할 만한 사랑이다. 하지만 주전자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인 물 끓이기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큰 결함마저도 용서하도록 만들 만큼 '디자인의 힘'이 강했던 것이라. 물론 이 말뿐 많은 주전자의 디자인 파워가 누구에게나 통하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투덜거리면서도 고장이 나면 결국에는 또 사고야 마는 '집착적인' 팬이 그녀뿐인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결국 고질적인 결점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운명에 처하고야 말았지만, 이 주전자를 더 이상 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못내 안타까워하는 소비자들이 꽤 있었다고 전해지니 말이다. 이처럼 메카니즘이 꽤 단순한 편인 주방 가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할 때 동지로 삼는 '스마트한' IT 기기라면 물건에 대한 애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요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나가는' 애플의 디자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 '사과' 로고 모니터의 매력, 눈길만이 아니라 손길도 사로잡는다

한입 베어 문 사과 모양 로고가 하단 가운데 새겨진 애플 일체형 데스크톱 PC 아이맥. 전체적으로 날렵한 일체형 디자인에 얇디얇은 옆면과 매끄러운 모서리가 특징이고, 전원 코드 하나만 연결하면 다른 지저분한 선이 필요 없는 이 PC에 대해서는 사실 불평도 들린다. 컴퓨터의 심장 같은 맥 운영 체제(OS)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뛰어나고 보안이 잘되는 등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호환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아서다. 또 워드 프로그램은 한글로는 글자색 종류나 각종 세세한 기능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다. 그래픽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 이들이야 당연히 맥을 사랑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불편하게 느껴질 요소도 제법 있다. 그런데 작업이라고는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타 이평만 하는 사무직도 아이맥에 반하게 되는 매력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모니터다. 숙이거나 젖혀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모니터는 뺄때나 빼어나지만 전원을 켜게 만드는, 그리고 일에 몰입하게 만드는 윈치 모드를 함을 발산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단지 예쁘다는 차원

이 아니다. "모니터의 힘 때문에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에 앉아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게는 분명 그런 힘이 작용해요." 런던과 일본을 무대로 활동해온 제품 디자이너 박혜연 씨는 이렇게 찬양했다. 아이맥 애호가들은 이러한 매력에 빠져 다른 OS에서 작업한 문서의 글자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다. 커다란 장점 덕분에 그런 불편한 정도는 사소한 단점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PC 사양이 구식이라 더 이상 쓸 수 없는데도 기념품처럼 과거의 맥 제품을 작업실에 진열해놓거나 창고에도라도 놔두는 이들이 꽤 있다. 이는 아마도 다분히 상향 평준화된 PC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장점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상품에 반영한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의 힘일지도 모르겠다.

## 개방형 vs 폐쇄형 업무 환경, 중요한 건 평등이다

이는 모니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허먼 밀러의 에어런 체어, 스틸 케이스 립 체어 등 착석감이 뛰어난 의자에서 '집중의 힘을 빌린다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몰스킨 같은 수첩에서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는다는 이들도 있다. 사소한 도구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물건들의 '도우미' 역할도 이렇할진대, 우리를 둘러싼 작업 환경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직장에 대한 애정도가 가장 높은 직원 중 98%는 사무실에서 "쉽게 집중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4년 10월호). 그런데 과연 어떤 환경이 집중에 도움이 될까? 많은 이들은 집중력을 발휘해 책임감 있게 일하려면 흔히 '탁 트인'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느끼는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 여부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일에 대한 직장인들의 만족도와 애정도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나라나 지역마다 프라이버시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인지 '일류'를 지향하는 많은 기업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집중과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업무 공간을 구성하는 데도 꽤나 공을 들인다. 이런 경향은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만족감을 더해줄뿐더러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하는 협업의 효과 역시 높인다는 주장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에 무게를 둔 개방형이든 프라이버시를 염두에 둔 폐쇄형이든, 일단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는 '평등'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예전대 사무실 환경이 기본적으로 개방적이라면 지휘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가 열린 공간에서 일하되,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하고 접근하기 쉽게 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실제로 이런 환경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네덜란드의 경우, 직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업무 환경의 힘, 밸브와 현대카드

프라이버시의 생산성의 관계에 주목하는 회사들은 업무 환경이나 방식에 꽤 달리한다. 너무 개방적인면 역효과가 있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폐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단지 '눈치를 안 보게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누군가 자신을 '배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느껴 주눅이 든 상태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호랑이 감독으로 유명한 알렉스 퍼거슨 경도 훈련 시간에는 절대로 선수들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때야말로 선수들이 사합 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밸브(Valve)라는 PC 게임 개발업체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각자 소비자 입장에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프로젝트에 근무 시간을 100% 할애할 수 있다. 또 협업이 필요하다면 바퀴 달린 책상을 움직여 무리(cluster)를 이루는 식으로 자유롭게 팀을 꾸린다. 그런데 직원 1인당 거두는 수익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높다고 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 구글은 엔지니어들이 근무 시간의 20%를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번스타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학술지에 구글의 제품 포트폴리오 중 절반 이상이 이처럼 '보호받는 시간' 덕분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리콘밸리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 공간이 필요하되, 교류 없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꽤 강하다. 사람들이 오가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우연한 충돌'이 가능한 공간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글은 신사옥을 '우연한 만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했고, 페이스북은 수천 명의 직원을 약 1.5km 길이의 단일 공간에 모을 계획이라고. 현대카드는 여의도 본사 1층에 일명 '아이디어 테이블'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필기구가 마련돼 있어 오가다 마주치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다. 집중이나 재충전, 사적인 일로 시간을 잠깐 할애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고립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중요하다.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 없이 구조만 약간 변경해도 조직원들의 행동과 문화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회사 건물 각 층에 '휴대폰 부스'를 설치했다. 여의도 본사에는 두 동에 걸쳐 모두 28개의 부스가 설치돼 있다. 휴식이 필요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표출해야 할 때 청각적으로나마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은근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

그러나 반드시 혼자 있다고 해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낯선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을 때 오히려 나만의 세계에 몰두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내향적인 이들도 그렇다는 의외의 결과도 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일하기 위해 카페를 찾는 것은 대개 직장에서 '낯익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적당히 낯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데다 잔잔한 소음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오히려 창의적인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끄러워 피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찾게 된다는 '백색 소음'의 효과. 자연이나 생활 속의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백색 소음은 균등하고 일정한 저주파수 대역의 소리로, 귀에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덮는 기능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는 거의 '공부'의 전당 카페에서 저마다 보고서나 책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은가. <콰이어트(Quiet)>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펴낸 수전 케인의 실제 사례를 보자. 내향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그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에 자신의 집 안에 안락하고 재밌게 잘 드는 자신만의 집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고독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니 마음을 도통 잡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필요한 자료와 노트북 등 집필에 필요한 '잡'을 잔뜩 싸들고 카페로 향했다. 자신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준 책을 이 카페에서 끝낸 그녀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카페가 내 사무실이 된 까닭은 현대의 학교와 직장에는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사교적이었지만 편안했고, 원하는 대로 오갈 수 있는 분위기라 불필요하게 엄밀한 일이 없었고, '의도적으로'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었다. 나는 원하는 만큼 관찰자와 행위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또 환경도 통제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내가 사람들을 보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고 싶으니까 따라 탁자 위치를 한가운데나 가장자리로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그날 쓴 것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고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 대개 나는 고작 몇 시간 후에 이 권리를 행사했다. 보통 사무실 직원들이 8시간, 10시간, 14시간씩 일다가 나오는 것과는 달랐다." 결국 균중 속으로 들어가 이름 모를 존재가 되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꼭 막힌 칸막이형 사무실에서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환경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내실 있는 전략일 테니 말이다. **SI** 에디터 고성연



블랑팡 우먼 컬렉션 **칼렌더 문메이즈** 워치 유럽 사투의 호수인 레랑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의 여성용 모델로, 6시 방향의 문메이즈와 우아한 자개 다이얼, 다이아몬드 베젤이 돋보인다.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2천만원대, 문의 02-2230-3868



부세르 **피트르 · 세렝 보행 컬렉션** 브랜드를 상징하는 화이트를 빈으로 나누어진 형태로 재주한 링 각 2백만원대, 나선형의 소용돌이 채인이 우아한 세렝 보행 핑크 골드 워딩 밴드 60만원대, 8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렝 보행 골드 스톤 링 3백만원대, 문의 02-3213-2246



에티어 화이트, 핑크, 블루

크로노스워스 **시리우스 문메이즈** 감이감이 느껴지는 기묘세 패턴과 블루 핸즈, 상징적인 양파 모양의 용두가 매력적인 문메이즈 스틸 남성용 워치, 무브먼트 C932를 적용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8백50만원, 문의 02-310-1737

# THE JEWEL

마음을 전할 일이 많은 5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데일리 주얼리와 클래식한 맛을 지아내는 워치 컬렉션을 눈여겨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타사키 **벨런스 에라 · 데인저 트라이브 · 코멧 컬렉션** 진주를 세팅한 벨런스 에라 링 2백40만원대, 가장 아름다운 식물 모티브의 데인저 트라이브 네크리스 2백70만원대, 우주의 혜성을 형상화한 코멧 네크리스 1백70만원대, 문의 02-3461-5558



해밀턴 **재즈마스터 오토매틱 레이디** 세련되고 우아한 블루 컬러 가죽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재즈마스터 오토매틱 여성용 모델, 해밀턴의 베스트셀러 여성 워치다. 모던하고 간결한 인덱스 바 디자인과 다이얼의 기묘세 패턴이 매력적이다. 95만원, 문의 02-3149-9593



불가리 **디바 컬렉션** 부채 모티브 디자인이 돋보이는 컬렉션,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주인공 엘라바스 타임러의 리능적인 매력에서 영감을 받았다. 화이트 자개 브레이슬릿 1백만원대, 오닉스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2백만원대, 카탈리안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2



파르미지아니 **론다 헤미스피어** 숫자 8을 연상케 하는 크로노그래프 마닛 & 아워 카운터가 돋보이는 남성용 워치, 브레이슬릿 각각의 링크와 라그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물방울 모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천4백90만원, 문의 02-310-1737



까르띠에 **아틀레트 드 까르띠에 컬렉션** 행운의 부적을 뜻하는 독특한 자물쇠 모양의 펜던트가 매력적인 컬렉션, 크리스프레이즈 브레이슬릿 2백90만원대, 핑크 오팔 XS 링 3백50만원대, 카탈리안 XS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문의 1566-2277



올리스 **나르망 듀얼 타임 레이디** 우아한 라인이 돋보이는 원형 케이스, 12시 방향에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로마숫자 인덱스, 자개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는 스틸 여성 워치. 2개의 플러스·마이너스 푸셔를 사용해 쉽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9백90만원, 문의 02-3213-2248

## MESURE ET DÉMESURE\*



**TONDA HEMISPHERES**  
로즈 골드  
오토매틱 무브먼트  
듀얼 타임존 인디케이션  
Hermès 악어 가죽 스트랩  
Made in Switzerland

**PARMIGIANI**  
FLEURIER

파르미지아니는 현존하는 최고의 마스터워치메이커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창립한 100% 인하우스 매뉴팩처 브랜드로, 역사적인 제품의 복원을 바탕으로 축적된 독보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737 · 롯데면세점 본점 02.759.6705 · 워커힐 면세점 02.450.6486

\* 질제와 가격





미도 멀티포인트 레이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손잡게 세척할 수 있는 러버 베젤과 스트랩, 5N PVD 소재 케이스를 사용해 실용성을 극대화한 오토매틱 여성 워치. 다이아몬드 인테스와 자개 다이얼, 화이트 케이스의 조화가 멋스럽다. 1백50만원대. 문의 02-3149-9599



오메가 시마스터 아우라 GMT 브레이슬릿 부분까지 18K 레드 골드를 골대어 이색한 아우라 GM 남성용 워치. 럭셔리 보트를 연상케 하는 세로선 다이얼과 클래식한 디자인이 고급스럽다. GMT 기능을 탑재해 해외 출장이 잦은 이들에게 유용하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타미나 T 컬렉션 알파벳 T가 자신 강렬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 타미나 T 와이어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T 스마일 펜던트 네크리스 3백만원대, T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링,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 링 각 2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론진 마스터 컬렉션 아라비안 숫자 인테스와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심플하게 보여주며 고급스러움을 더한 오토매틱 남성 워치.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와 30m 생활 방수 기능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 8백만원대. 문의 02-3149-9532



샤넬 화인 주얼리 울트라 코코 크러쉬 플롭 컬렉션 유성을 형상화한 화이트 세라믹 울트라 코스의 드 샤넬 불랑 링 3백만원대, 모던한 라인의 코코 크러쉬 옐로 골드 미디엄 링 3백만원대, 코코 크러쉬 화이트 골드 스몰 링 2백만원대, 깃털 모티브의 플롭 네크리스 2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몽블랑 보렐 데이트 퀴츠 30mm의 스틸 베젤과 화이트 컬러 다이얼이 아우라져 클래식한 세련미를 엿볼 수 있는 여성용 워치. 다이얼 위에는 아름다운 꽃잎을 연상케 하는 숫자와 함께 다이아몬드 8개로 인테스를 표시해 특별함을 더했다. 2백34만원. 문의 02-3485-6627



포엠티도 플로디올리네 - 누도 - 카프리 컬렉션 투명한 원석에 다이아몬드로 반짝임을 더한 플로디올리네 링 3백50만원대, 컬러 스톤 장식의 누도 링 각 2백70만원대, 카프리 샹에서 영감을 받은 카프리 타프시 네크리스 2백30만원대. 문의 02-3213-2260



태그하이퍼 카메라칼리버 1887 크로노그래프 43mm 세라믹 베젤 세련된 매력을 지닌 카메라칼리버 16 타카미터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새로운 버전 모델. 자사 무브먼트인 칼리버 1887을 탑재했으며 베젤은 세라믹 소재로 업그레이드했다. 5백30만원대. 문의 02-776-9018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TGM 1991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디자인 중 하나인 케이프 코드 라인업의 리뉴얼 버전 남성용 스틸 워치. 기존의 디자인과 소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입체적으로 솟은 숫자 인테스를 적용했다. 4백만원대. 문의 02-3448-0728

# KARL LAGERFELD



PHOTO : KARL LAGERFELD

KARL.COM  
#KARLLAGERFELD



화사한 플라워 프린트의 파스텔 옐로 컬러 실크 스카프 56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선명한 핑크 컬러의 숏이자기족 리키 드로스트링 호보 백, 18X22cm, 2백1만원 **말브 로렌 칼렉션**, 문의 02-545-8200



(위부터) 감성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보이지 컬러 블랙 폴드오버 포셋 백 43만원 **DVF**, 문의 02-3442-7114, 풋으로 그린 듯한 드로잉 패턴이 돋보이는 프린트 그래픽 니 레이 클러치, 26X16cm, 1백만원대 **버버리**, 문의 02-3485-6536

for her

# THE FASHION

올해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여기, 까다로운 그녀를 만족시키면서 가격대가 비교적 합리적인 5월의 패션 아이템을 준비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링은 유현정  
이스타일은 이세영, 박혜미  
메이크업은 김유진



(왼쪽부터) 메탈 드트 장식을 더한 스가죽 고미노 슈즈 89만원, 태슬 디테일과 주얼 메탈 장식이 포인트인 스가죽 고미노 드라이빙 슈즈 85만5천원 모두 **토즈**, 문의 02-3438-6008



여러 개를 함께 레이아웃했을 때 더욱 화려하고 멋스러운 슬레이크 크리스탈 팔찌 각 13만원 **스이로브스키**, 문의 02-514-9006



가장착적인 블랙 패턴의 빅 사이즈 클러치 35X27cm 35만원, 감각적인 컬러 배색과 화이트 컬러 트러밍의 조화가 세련된 체인 백 21X15cm 1백29만원 모두 **피에르 이르다**, 문의 02-310-5052



휴대편과 작은 지갑 정도만 수납할 수 있는 앙증맞은 사이즈의 파스텔컬러 마이크로 피카부 백, 15.5X11cm, 각 1백7만원 모두 **텐디**, 문의 02-2056-9022



(왼쪽부터) 주얼 장식 사각형 버클이 눈에 띄는 우아한 디자인의 베이지구두 1백20만원대, 크로스 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LV 로고 패턴의 레드 트윈셋 백 23X17cm 1백70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클래식한 디자인과 컬러 배색이 우아한 줄리 블랙 스카기 백, 30X22cm, 2백35만원 **아이디나**, 문의 02-759-0887

# LOEWE



Sunglasses, 2015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2014 그레이트 캐리더 존 F. 케네디 에디션 만년필 1백31만원, 벨간색 라인이 돋보이는 스타워커 아반 스피드 만년필 78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02-2118-6053 (맨 아래) 산토스 드 가르피에 워치의 크라운 데크에서 영감을 얻은 산토스 드 가르피에 커프스 링크 70만원대 **가르피에**, 문의 1566-7277



(왼쪽부터) 테두리에 블랙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송아지 가죽 브라운 벨트 1백만원 **폴 포드 by 분다삼**, 문의 02-3444-3300, 포말한 정장에도, 캐주얼한 웨에도 잘 어울리는 클래식 브라운 벨트 65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늘색 코튼 셔츠 36만5천원, 스트라이프 실크 타이 16만5천원, 나트 도트 타이 41만원 모두 **유고 보스**, 문의 02-6905-3751

for him  
**THE FASHION**

때론 클래식하게, 때론 트렌디한 룩을 즐기는 그의 취향을 고려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선물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링에 유용한 아이템은 이색성, 다양성, 유니크함



(왼쪽부터) 상징적인 X자 밴드가 눈에 띄는 화이트 트라클 맥스 스니커즈 89만원대 **에르메네제갈도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팔라티**, 문의 02-518-0285 체인 장식 프린트가 감각적인 슬림은 7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세련된 투톤 컬러의 브리프케이스, 32X38cm, 2백60만원 **발리**, 문의 02-3467-6213



(위부터) 독특한 그물 디테일의 가죽 클러치, 32X21.5cm, 77만5천원 **발렌시아가 by 분다삼**, 투톤 컬러의 모자 29만원 **미스터 김 by 분다삼**, 문의 02-3444-3300



에스닉한 패턴이 돋보이는 프린트 에디션 17로 포인트를 준 소가죽 클러치 29.5X23cm 97만원, 미국 국기 모티브의 화이트 카드 지갑 39만원 모두 **자일시**, 문의 02-517-7560



(왼쪽부터) 로고 버클 장식이 멋스러운 하늘색 가죽 팔찌 20만원대 **파라카모**, 문의 02-2140-9642 실크를 피어민트 핑거 3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위부터) 블루 컬러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브라운 샌들 1백만원, 화이트 컬러의 양가죽 에스파드루유 65만원 모두 **프라다**, 문의 02-3442-1830



울여름 가볍고 쿨한스타일로,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 빈폴과 최고의 스타 셰프들이 준비한 딜라이트 레시피! 시원한 이벤트를 QR 코드와 빈폴 홈페이지 [www.beanpole.com](http://www.beanpole.com)를 통해 확인하세요.

**BEANPOLE**



**Bestseller for Friend**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SK-II의 피테라 성분을 미스트에 담아 수시로 촉촉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피테라 나인 미스트, 50ml, 7만원대 **SK-II**. 피부를 탄탄하게 조여 얼굴 라인을 도약하게 잡아주는 포에버 유스 리피리터 Y필라테스 세럼, 30ml, 18만원대 **입성모양**. 최초의 한방 부스틴 에센스의 4세대 버전 **윤조에센스**, 60ml, 9만원대 **설화수**. 피부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해 광채 피부를 선사하는 수블리미지 레장스, 30ml, 51만원 **샤넬**. 피부에 닿는 즉시 촉촉하게 흡수되며 꾸준히 사용하면 탭 탭한 피부로 바뀌주는 어드밴스드 제-피피, 30ml, 11만원 **랑콤**.



**Grooming for Boyfriend**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킨과 에센스가 결합된 워터 젤 타입으로 화장품을 바르기 귀찮아하는 남성들에게도 제격인 **본오에센스**, 140ml, 7만3천원대 **설화수**. 지포 특유의 리아터 패카지가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우디 계열의 미스스 향수, 40ml, 4만3천원 **지포**. 자동차 엔진에서 영감을 받은 패카지와 베르가모트 향기가 남성적인 아이론 향수, 100ml, 12만5천원 **단힐**.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워터 타입 애프터셰이브 에이지저, 100ml, 4만6천원 **클라린스 맨**. 시원하고 상쾌한 향과 조화를 이루는 블루 컬러 볼을 패카지가 인상적인 VIP 클럽 향수, 100ml, 9만원 **메르세데스-벤츠**.

에티어 베리안, 권유진, 김지혜

# THE BEAUTY

사랑하는 이들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라다면? 가족부터 친구, 연인까지 연령대와 취향을 배려한 뷰티 기프트 컬렉션을 준비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ake-up for Sister**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러시로 얼굴을 한번 쓸어주면 은은한 광채를 선사하는 메테오리트 라인보우 필 파우더 리미티드 에디션, 25g, 8만원 **결랑**.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보호해주는 원 에센셜 시티 디펜스, 30ml, 7만8천원 **디올**. 메이크업을 하루 종일 고정해주며 카바레이크이 뛰어난 베르세시옹 쿼디메르 엑스 트럼프 파우더 파운데이션, 12g, 7만5천원 **샤넬**. 잡티를 깨끗하게 커버해주는 가벼운 젤 타입의 슈어 앤 퍼펙트 파운데이션, 30ml, 6만2천원 **시세이도**. 티타늄 오일 성분으로 칼라가 촉촉하게 표현되는 아데이스스 립스틱 나일리, 4.2g, 3만9천원 **나스**. 부드러운 텍스처와 새틴된 케이스기 특징인 립 컬러 트루코랄, 3g, 6만원 **롬 포드 뷰티**. 생기 넘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줄 블러쉬 스텝 로즈 발레리나 022호, 6g, 5만3천원대 **랑콤**.



**Prestige for Mother**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노화된 세포 재생을 돕는 라 크렌드 크림, 30ml, 68만원 **골레드보 보베**. 피부의 균형을 맞춰주고 보습 효과를 지닌 셀룰라 세럼 플레놀레어, 30ml, 9만원 **라 프라에리**. 화이트 로즈 성분이 피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 르 넥타 블랑, 30ml, 46만원 **디올**. 진정 효과가 있는 녹차 성분이 피부 속 에너지를 활성화해주는 디인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 50ml, 48만원 **이모레파시픽**. 피테라 성분이 눈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LXP 알티미트 퍼펙팅 아이크림, 12g, 22만원대 **SK-II**. 솔로 추출물이 얼굴선을 탄력 있게 잡아주는 라-뉴트리브 다이아몬드 뮤트 인뮤트, 25ml, 52만원 **에스티 로더**.



- 골레드보 보베 080-564-7700
- 라 프라에리 080-511-6626
- 디올 080-342-9500
- 이모레파시픽 080-023-5454
- SK-II 080-023-3333
- 에스티 로더 02-3440-2522
- 결랑 080-343-9500
- 샤넬 02-3442-1043
- 시세이도 02-3456-0103
- 나스 080-564-7700
- 롬 포드 뷰티 02-6905-3637
- 랑콤 080-022-3332
- 입성모양 02-512-0406
- 설화수 080-023-5454
- 단힐 080-800-8809
- 클라린스 맨 02-3014-2913
- 메르세데스-벤츠 지포 02-3443-1805



dunhillfrances.com ALFRED DUNHILL LTD

dunhill  
LONDON  
ICON

THE NEW FRAG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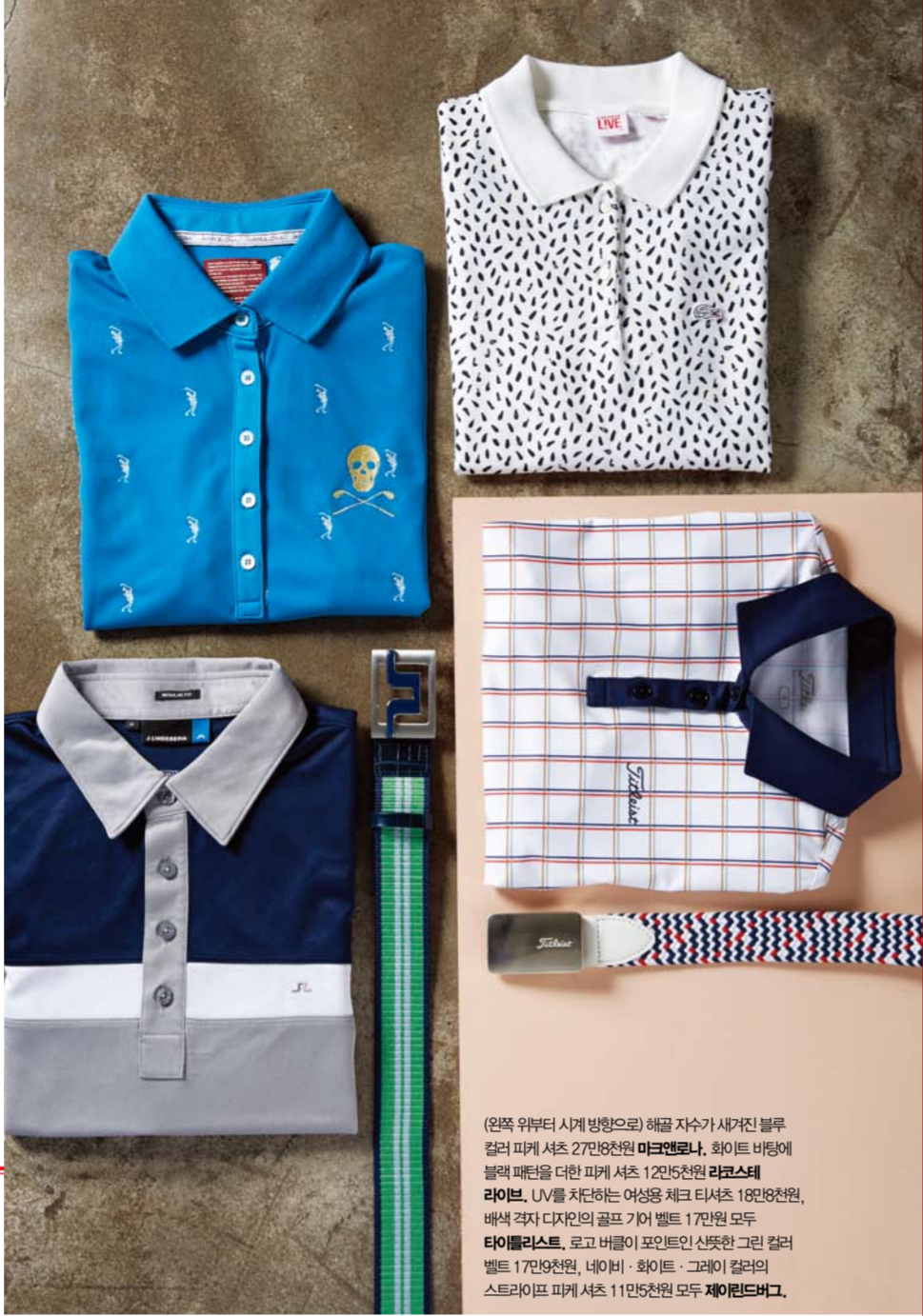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플한 자수 로고를 새긴 베이지·버건디 컬러 모자 각 5만9천원 **제이윈드버그**, 통기성이 좋고 부드러운 감촉의 지오닉 소재 실크 컬러 스파이더스 골프화 35만원 **엘로드**, 브론즈 컬러의 여성 골프화 22만9천원 **잭 니클라우스**, 빛살무늬 돌기로 미끄럼을 방지하는 헤든 스파이더스 골프화 21만9천원 **대상트 골프**, 컬러풀한 프린트가 매력적인 골프 장갑 13만8천원 **미크엔로나**.

# THE OUTDOOR

유니크하면서 클래식한 피케 셔츠부터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줄 골프화까지, 선물의 품격과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지닌 골프 & 아웃도어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활용도가 높은 블랙 솔더백 52만원 **랑방스스포츠**, 발과 신체의 밀착감을 높여 안정감이 뛰어난 인피니티 웨이브 보이 골프화 제임 005 30만원 **미즈노**, 오렌지 컬러의 카무플라주 패턴 모자 12만9천원 **미크엔로나**, 경쾌한 컬러가 포인트인 체크 팬츠 31만9천원 **제이윈드버그**.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골 자수가 새겨진 블루 컬러 피케 셔츠 27만9천원 **미크엔로나**, 화이트 바탕에 블랙 패턴을 더한 피케 셔츠 12만5천원 **리코스체 라이브**, UV를 차단하는 여성용 체크 티셔츠 18만9천원, 배색 격자 디자인의 골프 기어 벨트 17만원 모두 **타이틀리스트**, 로고 바늘이 포인트인 실크한 그린 컬러 벨트 17만9천원, 네이비·화이트·그레이 컬러의 스트라이프 피케 셔츠 11만5천원 모두 **제이윈드버그**.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럽을 쉽게 식별하고 꺼낼 수 있는 스탠다드 디자인을 가미한 프리미엄 에디션 캐디 백 65만원 **타이틀리스트**, 소가죽 소재의 블랙과 레드 투톤 컬러 슈즈 39만9천원 **보그너**, 천연 소가죽 소재의 편향 레이스업 슈즈 53만원 **로투메 by 란스미어**, 오렌지·핑크·옐로 컬러가 화려한 골프공 2만9천원(3개 세트) **미크엔로나**, 청량한 블루 컬러의 JPX850 드라이버 70만원 **미즈노**, 부드러운 가죽 손잡이가 포인트인 빅 백 49만9천원 **미크엔로나**, 화려한 화이트 컬러 캡 모자 18만원 **랑방스스포츠**.

**리코스체 라이브** 02-542-9101 **미크엔로나** 02-310-1537  
**제이윈드버그** 02-3440-3920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랑방스스포츠** 02-3438-6252 **미즈노** 02-3143-3358  
**엘로드** 02-3677-8831 **대상트 골프** 02-2143-7631  
**란스미어** 02-542-4177 **보그너** 02-6917-5266  
**잭 니클라우스** 1588-7667

▲타이틀리스트 유한정  
▲리코스체 이영희 박영미  
▲에디터 배미진, 김유진, 김서혜

*La Rouge*  
2015년, 나에게 선물하는 가장 핫한 레드 - 라루즈



초를 모두 태운 뒤 화분으로 사용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장식해도 좋은 퍼플 드라 메중 큰 사이즈 30만원대, 작은 사이즈 각 2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사진 전송과 공유가 가능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라이덴드 마이크로 카메라 EOS M3 22mm KIT 6928천원 **캐논**, 문의 1588-8133



(위부터 아래로) 휘슬리의 최상위 라인에 적용하는 슬라 패턴을 재해석한 레트로 슬라 옐로 마그 빅 3만8천원, 오리지널 슬라 마그 스몰 각 3만8천원, 수프 볼 4만원, 레트로 슬라 레드 빅 플레이트 8만2천원 모두 **휘슬리**, 문의 080-400-4100

# THE LIFESTYLE

감각적인 리빙 소품의 공통점은 오래도록 선물한 이를 떠올리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최신 라이프스타일 선물 제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그레와 레드 컬러 조합과 TV를 달은 독특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이너 루카 나체토의 조명 1백30만원 **포스카리니 by 에이하우스**, 문의 02-3785-0860



(왼쪽부터) 첫술꽃이 3만1천원, 가희학 패턴의 퓨전 컬렉션 스텝드 4만3천원 모두 **존 루이스**, 문의 02-310-5379 (오른쪽부터) 신선하고 신뜻한 향이 시원한 에스페리데스 그레아프루트 오드 퍼플 100ml 15만5천원, 여성스러운 향기가 특징인 핑크 자스민 오드 퍼플 100ml 15만5천원 모두 **프래쉬**, 문의 080-822-9500



사립리조트 휴양지 아사노에 아메리칸 에디션 헤드폰, 블루투스, 15만5천원

균형 잡힌 풍부한 사운드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프리미엄 헤드폰 베오블레이 H6 65만원 **뱅앤올룹슨**, 문의 02-518-1380. 풀림 온과 원크 샷 기능으로 셀미 촬영에 특화된 얇고 가벼운 미러리스 렌즈 카메라 NX 미니 9mm 렌즈 4만9천원 **삼성**, 문의 1588-3366



시원스러운 핑크 컬러로 달콤한 분위기 연출에 제각인 모엣 로제 임페리얼 8만원대, 골드 글라스 2개와 임페리얼 플러스로 구성된 세트 10만원 모두 **모엣상동**, 문의 02-2188-5100. 디자인, 치즈, 향 등 간단한 음식을 돋보이게 해줄 이카사 스케어 치즈 보드 9만9천원 **존 루이스**, 문의 02-310-5379



컬러가 각기 다른 3개의 슬림한 원이 모든 방향에서 빛을 비추주는 아몰레드 LED 스탠드 3428천원 **리움**, 문의 1600-1547



합판을 구부려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탄생시킨 디자인이 그래데 아르의 GJ 의자 5만1천원대 **할게 프로덕션 by 에이하우스**, 문의 02-3785-0860



##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의 깨끗한 바람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맑디 맑은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Birch Hill Terrace Residence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137



# Modern lifestyle

영국에는 '존 루이스(John Lewis)'라는 백화점이 있다. 1백50여 년간 지켜온,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Never Knowingly Undersold)라는 브랜드 철학이 보여주듯 올봄,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리빙 컬렉션을 선보인다.

## 영국의 라이프스타일이 깃든 존 루이스

포근한 소파와 따사로운 빛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공간의 이미지. 바로 존 루이스 컬렉션으로 가득한 멋진 풍경이다. 1864년 옥스퍼드 스트리트 직물 가게에서 시작된 존 루이스는, 영국 최대의 백화점 체인이자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백화점으로, 모던하면서도 컨템퍼러리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했다. 웰리티 높은 생활용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는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지난 1백50여 년간 존 루이스가 최고의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기능성과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신뢰받는 백화점이 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자 오랫동안 고객들이 존 루이스 제품을 찾게 하는 가장 큰 차별화 요인이기도 하다. 메인 사진 속에 등장한 실용적이면서도 모던한 뉴트리얼 컬러와 자연적인 질감이 느껴지는 소재, 영국적인 감성은 감각적인 아들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 루이스가 만들어 낸 아름다운 풍경이다.

## 소박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담은 크로프트 컬렉션

영국 존 루이스에서는 패션, 뷰티 제품부터 가구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공수한 제품과 고품질의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베딩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망라한 리빙



제품이다. 올해 봄과 여름에는 심플하고 베이직한 유티퍼인 감성에 크로프트 테마를 더했다.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여유롭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며 전원적인 느낌에 모던한 느낌을 곁들이는 식이다. 이를테면 화이트면에 내추럴 컬러의 라넨 보더를 기미한 침구, 톤 다운된 블루와 그레이 컬러의 주방 기물 등이 가장 중요한 테마다. 이외에도 이번 시즌에는 시티 파머를 위한 가드닝용품, 아이방 전용 소품, 사이즈별 수납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유티퍼인 감성의 모던 & 컨템퍼러리 라이프스타일

존 루이스의 매력을 가장 확실히 느끼고 싶다면 바로 침실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자. 호텔의 화이트 베딩 콘셉트를 기본으로 하되 스트라이프, 체크 등과 같은 패턴이나 블루, 그레이 등 모던한 컬러를 접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속과 커버는 분리해 판매하기 때문에 본인 특성에 맞는 속을 정하고 커버만 달리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 욕실은 페이스 타일, 게스트 타일, 핸드 타일, 배스 타일, 배스 매트 등 그 종류가 다양해 타일 하나만도 선택의 폭이 넓다. 여기에 욕실용 액세서리를 더해 화장실에 그쳤던 곳을 감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거실 제품은 쿠션이나 액자, 러그 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품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방은 백색 도자기를 기본으로 테두리에 블루 라인을 넣은 '코스탈', 그레이 컬러의 컨템퍼러리한 '퓨리탈' 등 모던한 디자인의 제품이 주목을 이룬다. 이외에도 커튼러리, 테이블 라넨 등 감각적인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존 루이스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의정부점·강남점·경기점·센텀시티점·인천점·영등포점에 입점되어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신세계, 이마트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www.ssg.com)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10-5379 에디터 배미진



1 존 루이스의 크로프트 컬렉션으로 꾸민 라빙 룸. 2 동양적인 느낌의 루나 컬렉션. 3 라넨 보더의 고급스러움과 컬러가 조화로운 워크로우 베딩 세트. 4 알·릿면의 재질과 컬러가 달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루체 라넨 쿠션. 레이크 블루와 블랙베리, 마시멜로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5 메트릭한 재질과 컬러가 특색인 퓨리탈 테이블 웨어 세트.



# 가족 모두 만족하는 여름 휴가 올-인클루시브!

5-10월 출발, 성인 109만원대부터  
예약마감 5월 31일

##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간 교통편
-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 ▣ 고품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 안락한 객실
-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PC | www.clubmed.co.kr  
모바일 | www.discoverclubmed.co.kr 02 3452 0123

예약문의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STYLE CHOSUN

# Heavenly Moments

눈부신 태양을 품은 계절, 강렬한 디테일과 클린한 실루엣의 프리서머 스타일, 그리고 카린(Carlym)의 시크한 백이면 충분하다. *photographed by jang duk hwa*



멀티컬러의 울터 롱 드레스,  
블랙 스트랩 슈즈 모두 **패라기모**.



상들리에 네크리스, 스와로브스키 보이드 링 모두 **미네타니**,  
블랙 안벨런스 슬리브리스 원피스 **스텔라 매카트니**, 블랙 & 화이트 컬러 맥두걸(1) 백 53만원 **칼린**,  
블랙 태슬 장식 물 **프로엔자스콜러**.



화려한 컬러의 볼드한 이어링  
피버리쉬, 허리의 레드 컬러  
다테일이 돋보이는 화이트  
슬리브리스 일피스 알렉산더 맥퀸,  
오렌지와 그레이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헤스터(L) 백 43만원  
칼린, 실버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스튜디오 와이즈먼.



네크리스 미네타니,  
파이론 패턴 재킷,  
짙은 베이지 쇼츠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베이지 컬러 블라우스 폴 스키스,  
블루 세인트 제임스(S) 백  
38만원 칼린.





블루 튜브 롱 드레스 버버리 프로섬,  
볼드한 브레이슬릿 미네타니,  
블루 & 옐로 컬러 캐서민(L) 백  
48만원 합핀.



블루 선글라스 트리티,  
에스닉 패턴의 롱 드레스 에트로,  
화이트 & 블루 컬러  
리роя(M) 백 53만원 합핀.



스위르부스키 레이스 장식의  
볼드한 진주 링 모두 **미네타니**,  
블랙 & 화이트 슬리브리스  
롱 드레스 **올로 할프 로렌**,  
그레이 & 화이트  
그랜드 백 48만원 **칼린**.

브라운 선글라스 **트리티**,  
오렌지 컬러의 에스닉 패턴 미니드레스,  
실버 스트랩 슈즈 모두 **구찌**.

헤어 **박선홍**  
메이크업 **홍현정**  
모델 **이영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업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http://www.stylechosun.com)

칼린 1800-8190  
알렉산더 맥퀸 02-6905-3793  
스튜디오 와이츠먼 02-6905-3991  
피버리쉬 02-532-3041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프로엔자 스크러 02-3479-6082  
미네타니 02-3443-4164  
에트로 02-511-2573  
트리티 02-3446-8556  
버버리 프로섬 02-3485-6883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틀스미스 02-6957-5815  
올로 할프 로렌 02-545-8200  
페라가모 02-2140-9642  
구찌 1577-1921



스타일링 유경 비연영(Sri Hanwa) 리포터 [www.sripa.com.kr](http://www.sripa.com.kr)

# urban Sportive

땀을 흡수해줄 저지 티셔츠와 몸을 조이지 않는 스트링 팬츠에 바람을 막아줄 가벼운 시티 아우터를 걸치고 스니커즈의 끈을 단단하게 묶어라.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온몸으로 스피드를 즐길 것. 실용적이고 액티브한 럭셔리 시티 웨어, 랑방스포츠의 2015 S/S 컬렉션과 함께 말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벼운 저지 소재에 지퍼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고 손목 스트랩으로 휴대성을 높인 클리처 35만원,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비브람 솔을 적용한 블랙 핏팅 트레이닝스 스니커즈 42만원, 등이 닿는 부분에 쿠셔닝 소재를 활용해 착용감을 높이고 방수 지퍼를 사용해 생활 방수 기능을 더한 경쾌한 프린트의 백팩 48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주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휴대가 간편한 시티 아우터 60만원, 컬러 배색과 메시 소재가 포인트인 청량한 나일론 스판 소재의 블랙 & 화이트 티셔츠 20만원, 경쾌한 프린트로 일상에서는 물론 리조트 룩으로도 재킷인 폴리 소재의 스트링 반바지 28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 스타일리시한 럭셔리 시티웨어, 랑방스포츠

아노락 점퍼, 스웨트셔츠, 트랙 쇼츠, 스니커즈 등을 스트리트 룩은 물론 런웨이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매년 시즌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포티즘(sportism)의 물결은 올해 4대 패션 위크의 주요 테마로 여겨질 만큼 절정을 이뤘다. 쿠티르적인 요소를 접목한 지난 시즌의 스포티즘 트렌드와는 달리 이번 시즌은 지금 당장 입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실용적이고 편안하면서 미니멀한 디자인에 집중한 스타일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파리 컬렉션에서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시티 바이크와 같이 멀티 라이프를 즐기는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해 실용적이고 세련된 시티 스포츠 웨어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고, 밀라노와 런던 컬렉션 역시 스포츠 웨어가 컬렉션의 근간을 이루며 편안하고 활동성을 강조한 시티 스포츠 웨어가 강세를 이뤘다.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브랜드를 꼽자면 단연 랑방스포츠다. 스포츠 웨어 전문 브랜드에게 기능성을 강조한 알반자진 '운동복'을 떠올릴 수도 있었지만, 랑방스포츠의 매장을 방문해보면 그런 편견은 단번에 사라질 것. 고급스러운 컬러 팔레트와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 스포츠 웨어 특유의 기능성과 테크니컬 소재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럭셔리 시티 웨어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다. 이는 크게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트렌드인 트, 세미 캐주얼 룩으로도 적합한 재킷 등 랑방스포츠 특유의 절제된 디테일과 몸을 타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그대로 표현한 '어반 애슬릿(Urban Athlete)' 라인과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포켓, 듀얼 후드 등을 접목한 점퍼, 활동성을 높인 저지 티셔츠 등 보다 활동적인 액티브 웨어인 다이나믹 퍼포머(Dynamic Performer) 라인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위부터) 밑단에 메시 소재와 핏팅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감성을 더한 블루 코튼 티셔츠 20만원, 앞면은 블랙, 뒷면은 프린트로 포인트를 준 점퍼 20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 2015 S/S 랑방스포츠 컬렉션 키워드, 스피드

랑방스포츠의 2015 S/S 시즌 테마 스포츠는 러닝(running)으로, 하이테크(hightech)와 라이트니스(lightness), '스피드(speed)' 등 세 가지 테마를 담고 있다.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가볍고 편안한 소재를 사용하고, 통풍성을 높이는 타공 기법을 가미하거나 아무든 곳에서든 안전하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반사 헬딩을 적용한 세심한 디테일로 주목할 만하다. 본격적으로 아웃도어 시즌이 시작되는 5월을 맞아 랑방스포츠가 주력하는 테마는 바로 스피드, 트랙과 스피드를 형상화한 패턴을 적용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이 테마의 키아템이다. 땀을 잘 흡수하는 부드러운 코튼 소재에 경쾌하고 시원한 메시 소재를 더한 티셔츠, 일상에서는 물론 리조트 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스트링 팬츠,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납공간이 넉넉한 기병까지, 스피드를 즐기는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아웃도어 룩도 세련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제품들은 현대백화점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의 랑방스포츠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252(현대백화점 본점), 02-772-3481(롯데백화점 본점), 02-2143-7575(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벼운 저지 웨어 메시 소재를 활용해 실용성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블루 백팩 48만원, 감각적인 스트링 디자인과 심플한 핏팅 디테일이 멋스러운 화이트 핏팅 트레이닝스 스니커즈 42만원,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내부에 탈착 가능한 클리처가 있어 실용적인 블루 스포백 4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1 갈라기 화려한 다이아몬드 시선을 사로잡는 RM 19-02 투르비옹 플라워, 7시 방향의 목련 꽃잎이 열리면 플라잉 투르비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정교한 소용돌이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투르비옹을 품고 있는 RM 51-02. 3 2001년 브랜드를 창립해 단시간에 성공으로 이른 리차드 밀. 4 목련 꽃잎이 닫혀 있을 때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수술만 보인다. 5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SIHH 전시장에서 선보인 리차드 밀 부스.

# ultra Modern

과연 시계 예술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올해 SIHH에서 선보인 리차드 밀의 새로운 컬렉션에 주목하라. 봄을 알리는 목련꽃이 피고 지는 순간에, 정통 시계에 관한 모든 가치와 현대적인 메커니즘의 드라마틱한 조우가 담겨 있다.

## 손목 위에 피어난 열정의 꽃 한 송이

스위스 시계 예술에 대한 집념의 대를 잇는 브랜드를 자처한다면, 시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시계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메커니즘을 담아야 한다. 리차드 밀의 시계는 외관을 확인하는 순간, 일단 어떻게 만들었는지 눈을 의심케 한다. 지난 1월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 SIHH에서 선보여 뜨거운 감자를 받은 RM 19-02 투르비옹 플라워는 '생동감'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다이얼 하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컬러의 목련은 섬세한 5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라잉 투르비옹을 세심하게 감싸고 있다. 목련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히 열리고 닫히는데, 꽃잎이 열릴 때 플라잉 투르비옹이 위쪽으로 1mm 씩 올라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꽃잎에 연결된 5개의 레버는 꽃이 피어나게 하고, 여기에 긴 피니언으로 결합한 또 하나의 장치가 연결되어 플라잉 투르비옹과 꽃의 수술을 들어 올린다. 이 꽃을 움직이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세컨드 바늘을 별도로 장착해, 시간을 표시하는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36시간이라는 긴 파워 리저브를 갖추었다. 전 세계 단 30개만 한정 생산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리차드 밀의 유니크한 매력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심한 무브먼트의 움직임에 가까이 바음을 지불할 것이다.



디자인과 기능을 구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완성도 있는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리차드 밀은 단시간에 놀라운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게 되었다. 리차드 밀 브랜드 정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단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2001년 첫 제품을 출시했을 때부터 신소재와 기술 혁신, 예술성과 수작업 피니싱을 추구하는 것이 리차드 밀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데뷔 제품인 RM 001을 20만유로라는 놀라운 가격에 출시한 것도 자신감의 상징이다. 모두가 실패하리라고 예상했지만 리차드 밀은 수백 건의 예약 주문을 받으며 성공을 거두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전혀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는 브랜드의 정신이 럭셔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준비 과정에만 21단계가 필요한, 가장 만들기 어려운 토너형 케이스를 고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른 브랜드에서 토너형 케이스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착용감이 편안한 대신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품질 관리가 까다롭고 팔목을 따라 양 끝이 흰 곡선 케이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하다. 이 케이스를 완벽하게 고안하기 위해 리차드 밀은 1년 이상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쳤고, 마무리 공정인 그라인딩, 브러싱, 폴리싱에만 꼬박 하루를 투자한다. 또 이 정교한 케이스의 완벽한 방수 기능을 위해 2개의 니트릴 O링으로 단단히 봉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카본과 나노 섬유, 최고급 티타늄 소재 등 자동차와 항공 산업에서 사용하던 신소재를 시계에 적용해 세계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 진정한 하이엔드 위치를 선보이는 브랜드로 칭송받을 만하다. 소용돌이치는 다이아몬드 세팅이 인상적인 RM 51-02 역시 리차드 밀이 추구하는 혁신이라는 모토에 걸맞은 제품이다. 다이아몬드 세팅이 압도적이기에 하이 주얼리 위치로 포지셔닝되었지만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로서의 완성도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나선형의 회오리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한눈에 유니크함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투르비옹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블랙 오톨로 제작해 소재의 새로움까지 더했다. 열정과 유니크함으로 가득한 리차드 밀의 위치는 국내에서는 장충동 신라 호텔에 위치한 리차드 밀 부티크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230-1288 에디터 배미진



## Coco Crush

5월 1일 공식 론칭하는 샤넬의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코코 크러쉬. 국내에서는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각 두 가지 버전, 총 네 가지 버전을 먼저 출시했고, 볼드한 컷 브레이슬릿은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 Crush on you

샤넬 화인 주얼리의 모던한 유산인 마틀라세(Matelassé) 컬렉션의 섬세한 쿼츠 패턴이 지닌 매력을 오롯이 담아 새롭게 탄생한 현대적인 주얼리 컬렉션 코코 크러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New Paradigm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세팅에 생생하게 새긴 샤넬 고유의 쿼츠 패턴에는 여성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심플한 가운데 정교한 새김기를 선보이는 코코 크러쉬 컬렉션의 다양한 디자인은 벌써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예약 판매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코 크러쉬의 멋진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cococrush'를 검색하면 된다. 문의 02-3442-0862 에디터 배미진



# Perfect game

멋진 스윙을 날려줄 골프채부터 푸른 잔디 위에서도 빛날 골프 웨어까지 준비했다면 마지막으로 모던한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을 모두 갖춘 제이린드버그의 골프 백으로 봄철 라운딩을 만끽할 차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복유형 디자인과 스포츠의 만남, 제이린드버그. 골프 웨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제이린드버그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브랜드로 잘 알려진 디자인의 디자이너 요한 린드버그가 탄생시킨 브랜드로 패션·골프·스키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드해 보이는 골프 웨어에서 벗어나 완벽한 핏과 젊은 감각을 담은 골프 브랜드인 제이린드버그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탄생해 활동적인 스키나비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한다. 모던하고 잘제된 디자인과 감각적인 테일러링이 특징인 제품을 보면 제이린드버그만의 남다른 스타일링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렇게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이린드버그가 2015 S/S 시즌 캐디 백, 스탠드 백, 보스틴 백으로 이루어진 액세서리 라인을 선보인다. 먼저 수납공간이 넉넉한 9.5인치 프리 사이즈의 캐디 백은 화이트와 블랙의 기본 배색에 세밀하게 패치된 PU 가죽으로 이루어졌으며 테두리를 따라 레드 컬러의 트림 포인트를 더해 멋스럽다. 백의 헤드 부분에는 에-엘 소재로 심플한 로고를 표현해 제이린드버그의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살렸다. 다양한 사이즈의 포켓은 골프공과 우산처럼 작은 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세심함이 돋보인다. 특히 고객의 이름을 자수로 새겨주는 모노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완벽한 방수를 자랑하는 폴리우레탄 소재로 비가 오는 날에도 가방이 젖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또한 매력적. 튼튼하면서 부드러운 손잡이는 그림같이 좋아 가방을 운반할 때 들기 쉽다. 골프채를 넣는 입구는 부드러운 쿠션으로 미루리해 인장감이 느껴진다. 5분할 프레임의 스탠드 백은 화이트와 블랙 배색이 심플한 제품으로, 몰딩 프레임에 배치된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8.5인치 사이즈의 골프 백은 경량 소재로 무게를 덜었다.

골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이린드버그 액세서리 캐디 백과 스탠드 백의 세트 콘셉트로 출시되는 보스틴 백은 충분한 수납공간과 신발 주머니로 골프 연습을 하러 갈 때 유용하다. 캐디 백, 스탠드 백과 달리 의류와 신발을 주로 수납하는 백답게 골프 외에 다른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갖췄다. 솔리드 PU와 펀치 PU 소재를 믹스해 완성한 보스틴 백은 끈과 밑에도 끄덕이는 방수 기능을 갖췄고, 은장 로고 엠블럼이 제이린드버그만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준다. 별도의 네임 태그가 포함되어 있어 태그를 따로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잘리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함께 라운딩하는 골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할 것. 한번 구입하면 오래도록 사용하는 골프 백은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이 필수인데, 제이린드버그의 액세서리 컬렉션 모두 화이트와 블랙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골프의 첫걸음인 장비를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골프 백은 골퍼에게 유익할 것이다. 올봄,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 제이린드버그의 클래식하면서 액세서리로 한층 프로페셔널한 골프 스타일링을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 골프 액세서리의 기능은 물론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춘 제이린드버그의 액세서리라면 한층 트렌디한 골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강화된 제이린드버그의 액세서리 라인은 5월 중순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센텀시티점·인천점·경남점·갤러리아 백화점 EAST, 현대백화점 무역센타점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패션에 민감한 골퍼라면 제이린드버그만의 매력에 빠져들어 어느새 필드 위에 제이린드버그 액세서리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문의 080-938-0000 에디터 권유진, 김지혜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 차분한 그레이 컬러의 스웨이드 태슬 로퍼 47만원, 가죽과 스웨이드를 결합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클래식 슈즈 79만원, 자연스럽게 비엔 브라운 컬러 가죽과 원형 포인트인 슈즈 79만원, 출중한 워킹 디테일이 특징인 슈즈 85만원,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모던한 디자인이 테크니컬 골프화 53만원, 마요르카 섬에서 영감을 받은 신축성 컬러의 골프화 53만원, 일상생활에서도 가볍게 신을 수 있는 트윅스터 어반 골프화 43만원. 모두 로투세.

# Timeless shoes

대대로 이어진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클래식한 디자인과 유연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스페인 핸드메이드 슈즈 브랜드 로투세. 패션 스타일링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동시에 남자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로투세의 슈즈 컬렉션을 주목해야 할 이유.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지중해 낙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슈즈, 로투세**  
지중해 서부에 위치한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 에메랄드빛 해변이 펼쳐진 이곳은 1백3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슈즈 브랜드 로투세의 탄생지다. 황홀한 풍경과 여유로운 마요르카 섬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담아 슈즈를 제작하는 로투세. 아직 국내에서 생소할 수 있으나 미국과 유럽, 중국까지 활발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로투세

**로투세, 1백38년의 노하우를 말한다**  
패션의 마무리는 신발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스타일이나 잘 어울리는 클래식 슈즈는 언제나 옳다. 이러한 점에서 로투세의 슈즈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오래도록 신을 수 있어 합적 점수를 받을 것. 특히 2015 S/S 시즌에는 차분한 컬러와 부드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클래식 슈즈와 세련된 골프화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에서도 클래식 슈즈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옥스포드화가 눈길을 끄는데, 매끈한 몸체 디자인과 섬세하면서 절제된 원형 디테일에서 장인의 정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스타일링하기 좋은 신발을 찾고 있다면 태슬 로퍼는 어떨까. 신고 벗기 편할뿐더러 앞코에 달린 경쾌한 태슬이 발걸음마저 가볍게 만들어준다. 톤 다운된 컬러로 출시돼 캐주얼해 보이는 스타일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것. 이외에 라운딩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로투세는 마요르카 섬처럼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골프화 라인을 선보인다. '다이나믹 테크니컬 골프 라인'과 '트윅스터 어반' 골프 라인, '헤리티지 라인'이 그것. 슈즈의 결과 안 가죽에 특수 트리트먼트 처리를 해 로투세의 모든 골프화는 최대 6시간 방수가 가능한 워터프루프 시스템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슈즈 바닥에는 특수 오일을 발라 필드에서 이물질이 묻어나지 않고, 신발에 잔디 물이 들지 않아 흠을 털기만 하면 된다. 다이나믹 테크니컬 골프 라인은 골퍼들을 위해 가볍고 편안한 디자인에 주력했으며, 트윅스터 어반 골프 라인은 골프 외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도록 멀티 콘셉트를 적용했다. 또 헤리티지 라인은 수작업의 장점을 살린 클래식한 매력에 특징이다. 로투세 제품은 국내에서는 '웃 줌 입는다'는 남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란스미어 청담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 스페인의 장인 정신을 직접 느끼고 싶은 남성이라면 주목해보자. 문의 02-542-4155 에디터 김지혜



1 2 클래식 슈즈와 골프화를 비롯해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로투세의 모든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스페인 비로셀로나 로투세 매장. 독일 록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로투세는 남성 제품 외에도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생략했다. 3 1877년 탄생해 1백3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답게 평균 연령 50세를 넘는 숙련된 장인들이 로투세 제품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한다. 4 스페인의 장인 정신과 가족을 다루는 오랜 노하우가 담긴 로투세 클래식 슈즈 제작 과정.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유연성. 새 신발을 신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발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 것. 이를 감안해 로투세는 신발을 제작할 때 발의 움직임에 미리 파악하고, 제품에 유연성을 더해 착용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나간다는 것. 기존 제품에 기능적인 면을 더하거나, 소재를 달리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유연성. 새 신발을 신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발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 것. 이를 감안해 로투세는 신발을 제작할 때 발의 움직임에 미리 파악하고, 제품에 유연성을 더해 착용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나간다는 것. 기존 제품에 기능적인 면을 더하거나, 소재를 달리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 high-Premium

입생로랑의 초청을 받아 모로코 마라케시로 향한 것은 벌써 1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강렬했던 기억은 여전히 컬러풀하고 생생하게 뇌리에 새겨져 있다. 아틀라스 산맥 깊숙한 곳에서 만난 고귀한 사프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기운을 담은 입생로랑 뷰티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컬렉션 오 후즈 (Or Rouge)가 긴 여정을 마치고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 사프란의 진귀함을 담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오 후즈

입생로랑이 새롭게 선보이는 최고급 프리미엄 스킨케어의 이름은 프랑스로부터 붉은 금을 의미하는 오 후즈(Or Rouge). 사프란의 붉은 암술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이름이다. 지난해 새로운 컬렉션이 탄생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무수 생로랑의 안식처, 모로코 마라케시를 찾았다. 입생로랑은 “모로코 마라케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매우 특별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는 나에게 컬러를 가르쳐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도시에 큰 매력을 느꼈고, 수많은 컬렉션에 마라케시의 자연과 문화, 질감을 담았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하늘빛의 도시 마라케시와 입생로랑의 유해가 뿌려져 있는 마조렐 공원을 둘러본 후 우리가 안배받은 곳은 험난한 아틀라스 산맥의 꼭대기였다. 그 높고 깊은 아틀라스 산맥의 골짜기가 바로 입생로랑 뷰티가 신성한 사프란 꽃을 공급받는 장소였던 것. 모로코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소담한 바구니에 미치 피어나지 않은 보랏빛 꽃을 담아서 둘러앉아 어린아이 다루듯 세심한 손길로 빨간 암술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요 같은 구성된 가락을 소리 높여 부르며 신중한 손길로 사프란 꽃을 다루는 모습은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입생로랑 뷰티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동이 뜨기 전, 암술이 손상되지 않도록 꽃봉오리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손으로만 사프란 꽃을 채취한다. 사프란 꽃 한 송이에는 암술대가 3개 있는데, 가을날 첫 여명과 함께 사프란 꽃에 이슬이 맺혔을 때, 여인들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프란 꽃을 봉오리째 따 후 3개의 암술대를 하나씩 섬세하게 분리한다. 그런 다음 암술대를 조심스럽게 건조해 밀폐 유리병에 보관한다. 사프란 1백50송이에서 겨우 1g에 불과한 암술을 얻을 수 있기에 고귀하고 진귀하다. 아틀라스 여인들의 삶의 지혜와 사프란에 대한 경이로운 존경심이 입생로랑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컬렉션 오 후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 아틀라스 산맥의 생명력을 담은 입생로랑 뷰티

입생로랑이 이렇듯 모로코의 방식 그대로 사프란을 채취하는 이유는 사프란이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값비싼 성분이기 때문이다.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사프란은 황금보다 값진 향신료로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입생로랑 뷰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글리칸(Glycan) 성분을 사프란의 암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생로랑의 사이언스 팀은 5년간 전 세계 1백여 종의 식물을 조사한 끝에 사프란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중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에서 서식하는 최고급 사프란만이 오 후즈에 어울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지 그럴듯한 성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안티에이징 성분이 고귀한 사프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생로랑 뷰티는 값비싼 성분임에도 가까이 사프란의 암술을 새로운 안티에이징 컬렉션 오 후즈의 핵심 성분으로 결정한 것이다. 입생로랑 사이언스 팀은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에서 채취하는 섬세한 연보라색 사프란 꽃잎에 싸인 암술대는 수명이 짧기에 그만큼 더 진귀하고 소중한 자연의 산물이다. 그 때문에 사프란 암술대는 수천 년간 금보다도 고귀하게 여겨져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신비로운 사프란 암술대에 담긴 글리칸 성분이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아주고, 피부 고유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글리칸 복합체 오 후즈 GFC™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강력한 활성 복합체 오 후즈 GFC™를 담은 새로운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오 후즈 컬렉션은 주름, 탄력, 미백, 윤기, 보습과 같은 피부 개선을 위한 모든 요소에 작용한다.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진귀한 원료인 사프란의 신비로운 힘을 피부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1천 시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오 후즈 크림은 잔주름과 표정 주름, 깊은 주름까지 모든 주름에 강력한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매력적인 제품이다. 사프란의 암술에서 영감을 받은 스페큘러로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면서 파르넬 광채와 모공 개선, 피부 탄력까지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사프란 추출물인 오 후즈 GFC™를 고통축한 제품을 원한다면 오 후즈 세럼을 선택하면 된다. 주름 개선효과는 물론 피부를 칙칙해 보이도록 하는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 톤을 화사하고 깨끗하게 케어한다. 이제 사프란 암술의 강렬한 빛깔, 모로코의 선명한 하늘, 마라케시를 사랑한 입생로랑의 열정이 담긴 새로운 프리미엄 컬렉션 오 후즈의 신비로운 매력을 만나볼 시간이다. 문의 080-347-0089 에디터 배미진 모로코 현지 취재



1 사프란의 강렬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오 후즈 컬렉션 (왼쪽부터) 아이크림, 세럼, 크림. 2,3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휴식과 영감을 얻은 입생로랑, 2008년 사탕인 이후 마라케시의 마조렐 공원에 그윽하게 뿌려졌다. 4, 6 오 후즈 컬렉션의 주원료인 사프란 꽃의 붉은 암술은 실제로 금보다 높은 가치에 판매된다. 입생로랑 뷰티의 핵심 성분인 글리칸이 농축되어 있다. 5 아틀라스 산맥에서 채취하는 사프란은 다른 지역의 사프란보다 다루기 어렵지만, 그만큼 뛰어난 유효 성분을 담고 있다. 입생로랑 뷰티는 헌신과 협력해 사프란을 공급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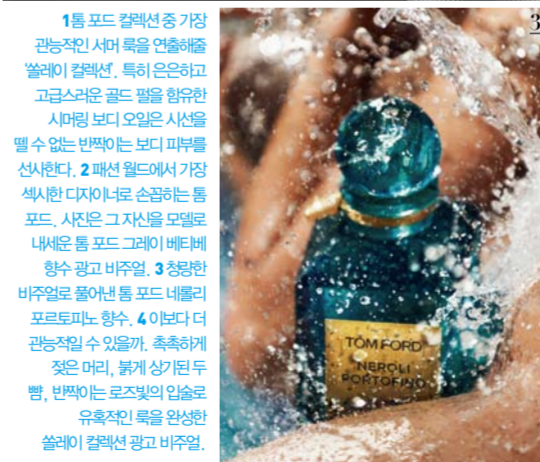


제품 사진 배미진

1



# sensual Beauty



1 톰 포드 컬렉션 중 가장 관능적인 서머 특출 연출해줄 '블레이 컬렉션'. 특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골드 핏을 함유한 '사틴' 보디 오일을 사용할 땀 수 없는 빈번한 보디 피부를 선사한다. 2 패션 월드에서 가장 색다른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톰 포드. 사틴은 그 자신을 모델로 내세운 톰 포드 그레이 배네 핑크 향과 비주얼. 3 은은한 비주얼로 콜라겐 톰 포드 네트리 포르토프로 향수. 4 이보다 더 관능적일 수 있을까, 촉촉하게 젖은 머리, 붉게 상기된 두 뺨, 빈번히 로즈빛의 입술로 유혹적인 특을 완성한 블레이 컬렉션 광고 비주얼.

패션 월드에서 디자이너 톰 포드만큼 섹시한 남자가 또 있을까. 자신을 브랜드 광고 모델로 내세울 수 있는 디자이너는 그가 유일하다. 50대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매끈한 피부, 늘씬하고 곧은 몸매에 수줍으며 섹시한 그를 담은 매혹적인 톰 포드 뷰티 코스메틱이 바로 여기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화려한 부활의 주역, 톰 포드

1990년대를 지배한 관능적인 색시 코드를 거부하는가. 여성의 볼륨을 극대화하는 피트라인의 수트와 허벅지를 드러내는 이슬이슬한 슬렉이 들어간 스커트, 무릎까지 올라오는 가죽 부츠까지. 이 관능적인 트렌드를 이끈 주인공은 내리막길을 걷던 패션 하우스 구찌를 화려하게 부활시킨 디자이너 톰 포드다. 그 당시 포르노그래피를 연상케 할 만큼 파격적이고 유혹적인 광고 속 구찌의 룩은 얼마나 센세이션얼했는지. 그가 선보인, 물의 실루엣을 타고 흐르는 새틴 셔츠와 과감하게 컷아웃된 드레스, 우아하고 섹시한 벨벳 수트, 눈부시게 화려한 이브닝 웨어는 당시 상류층 여성의 화려한 모습을 대변할 만큼 아이코닉한 스타일이 되었고, 그 결과 불과 2억3천만달러 매출을 내리막을 걷던 패션 하우스 구찌는 3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수익성 높은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가장 구찌다운 스타일로 회자되는 1990년대 구찌의 전성기를 이끈 톰 포드는 2004년 비록 구찌 그룹을 떠났지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담은 브랜드 톰 포드를 그 명성을 이어갔다. "나는 21세기 최초의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를 선보이고자 한다"라는 그의 말처럼 톰 포드는 자신을 그대로 복사한 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고 화려하며 럭셔리함의 극치를 이루는 남성복과 여성복을 선보인 것. 특히 화려한 주얼 장식과 매치한 아름다운 수트, 카데일 드레스를 선보인 여성 컬렉션은 여자의 마음을 꿰뚫는, 그리고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룩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배려한 최고의 컬렉션'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슈퍼스타 디자이너'라는 수식어를 증명하듯, 그가 만든 컬렉션 피스보다 권위가 끝난 후 피날레에 단 몇 분 등장하는 톰 포드를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더욱 설렌다고 말하는 패션 피플이 많을 정도로 패션 월드에서 그의 존재감과 두터운 팬덤은 상상 이상이다. 더불어 패션 필드를 넘어 뷰티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 그의 행보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아름다움에서 완벽한 스किन과 매력적인 향을 부여하는 뷰티를 빼놓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더욱 톰 포드 코스메틱의 국내 론칭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냐고? 여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톰 포드가 만든 화장품이니까, 사 용해보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변신한 나 자신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 가장 아름다운 변신, 톰 포드 뷰티

자신의 이름을 건 여성복을 론칭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선보인 것은 예상외로 향수였다. 현재 톰 포드 뷰티 매장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향수 컬렉션만 보어도 그가 향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2005년, 그의 룩을 대변하듯 아주 대담하고 관능적인 '블랙 오지' 향수를 처음 선보였는데, 이는 단지 톰 포드가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품질을 거듭하며 불타게 팔려나갔다. 그 후 '톰 포드 뷰티'라는 이름하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프라이빗 브랜드 향수 라인도 대담한 컬러를 담은 림 제품, 그리고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 줄 스킨케어 라인까지 추가하며 톰 뷰티 브랜드로 성장했다. 굳이 브랜드 로고를 보지 않아도 톰 포드 뷰티 제품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정체성이 확실한데, 톰 포드 패션 하우스 특유의 센수얼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은 럭셔리한 블랙 & 골드 패키지가 단연 돋보인다. 더불어 린스틱과 아이섀도, 파우더 콤팩트 위에 새긴 TF 로고는 톰 포드 뷰티를 상징하는 색인 산발이다. 패키지는 물론 텍스처, 성분까지 모두 톰 포드의 디렉션으로 완성되며 매장 인테리어와 서비스 방식까지 그가 지향한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메이크업은 여성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한 그의 말처럼, 톰 포드 뷰티 제품은 외모나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 스스로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다. 국내에는 작년에 론칭했는데, 그의 명성답게 매장을 오픈하는 첫날, 매장 앞에는 긴 줄을 선 시민들로 북방음을 이었다. 이날 하루 백화점 내 모든 브랜드의 실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톰 포드 뷰티가 매출 1위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듯 정도. 최근엔 실제로 그가 사용하는 남성 스킨케어 라인까지 대거 출시되었고, 5월에는 관능적인 서머 룩을 완성해줄 블레이 컬렉션을 출시한다. 자연의 질과 비범함을 담은 아이엔치 크 팔레트와 브로저, 로즈 톤의 립 컬러는 차명적일 만큼 매력적인 룩을 연출해준다. 더불어 화이트 패카지로 출시되는 한정판인 만큼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가장 아름다운 변신을 원한다면 1:1 맞춤형 럭셔리 뷰티를 제공하는 톰 포드 뷰티 매장을 방문해볼 것. 톰 포드 뷰티의 모든 제품은 갤러리 명품관 WEST, 한때백화점 입구정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톰 포드 뷰티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0-2760 에디터 권유진

## SPECIAL EVENT COUPON

### <스타일 조선폰보>와 톰 포드 뷰티가 함께하는 쿠폰 이벤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톰 포드 뷰티 매장 오픈을 기념해 본 쿠폰을 가지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톰 포드 뷰티 매장을 방문하시는 여성 고객께는 메이크업 서비스를, 남성 고객께는 그루밍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동시에, 톰 포드 뷰티의 베스트셀러 향수 샘플(1.5ml)을 증정합니다.

- ◆ 기간 2015년 5월 6일~24일
- ◆ 교환매장 톰 포드 뷰티 매장(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층)
- ◆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톰 포드 뷰티 매장 02-3479-1436, 02-3479-6171

\*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1

# editor's Pick

보디라인을 잡아줄 크림부터, 시원한 컬러 아이섀도와 워터프루프 라이너까지. 여름이 오기 전 <스타일 조선포> 기자들이 발 빠르게 체험해본 뷰티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발렌티노 발렌티노 핑크 장미 디테일 이 샀어 있는 보틀이 눈길을 사로잡는 향수, 스트로베리로 상큼하게 시폰해 작업의 풍부한 꽃 향을 가져 온온온에서도 우아하게 머무는 리프는 프랄린의 향이 매력적이다. 사랑스러움을 어필하고 싶은 여자들에게 인성맞춤. 80ml 16만5천원. 문의 02-3443-5050. *by 아시스턴트 에디터 박혜원*

프래쉬 슈가 립립 립 트리트먼트 SPF 15 은온한 컬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할 만한 립 틴트. 보습력이 뛰어나고 발색이 자연스러워 진한 립스틱을 칠하지 않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여러 번 덧칠해도 과장되지 않고, 발랄성 또한 뛰어나다. 4.3g 3만4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배미진*

베네피트 데이 라일 푸쉬-업 라이너 메이크업도 기술이라는 말은 아이리온을 그럴 때 새삼 와 닿는다. 아이리온을 생채고 얇게 그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으로, 고무 소재의 부드러운 털이 눈꼬리를 쉽게 쓸 올려준다. 완벽한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추어 울어물 물보라도 걱정 없다. 1.4g 3만6천원.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김지혜*

클레르보 보에 오브리 클레르 까드리 310 문 빔 클레르보 보에의 제품은 언제나 높은 만족감을 선사해준다. 이 제품 역시 깊은 컬러감과 은은하게 빛나는 질에 반했다. 특히 문 빔의 네 가지 컬러는 매력적인 노매를 완성해준다. 5g 10만원대. 문의 080-564-7700. *by 아시스턴트 에디터 박혜원*

글랑 메테오리트 베이비 글로우 화장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베이스로 특유의 재치 꽃 향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제품 하나로 피부 톤 보정과 건강한 윤기 부여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마와 콧대에 덧바르면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30ml 7만8천원. 문의 080-343-9500. *by 아시스턴트 에디터 박혜원*

다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 SPF 25 PA++ 이번 시즌 메이크업 트렌드는 맨 얼굴에 가까운 누드 스킨. 피부에 잡티가 있는 사람이면 이러한 트렌드가 당혹스러웠지만, 이 제품만 있다면 아이기가 달라진다. 포물라가 공기처럼 가벼워 얇게 펴 발리지만 피부에 빈틈없이 대해 잡티가 드러나더라도 예뻐 보이는 피부를 연출해준다. 30ml 7만5천원. 문의 02-3438-9537. *by 에디터 권유진*

모로칸노일 인텐스 크림 모발 텍스처는 실려주고 부스스함을 잡아줘 볼륨으로 고안된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젖은 상태에서 바르면 후 자극적으로 밀리고, 볼륨을 더 주길 원한다면 미끈한 스타에서 에센스 오일과 섞어서 발라줄 것. 300ml 4만9천원. 문의 1666-5125. *by 에디터 배미진*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아이 렌즈 부드러운 텍스처가 라인을 그릴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 안쪽에는 라이너가, 다른 안쪽에는 스머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날렵한 디자인의 틱이 있어 자연스럽게 아이섀도우 사용 가능해 실용적이다. 1.2g 3만원. 문의 02-3440-2522. *by 에디터 김지혜*

달팡 엑스큐시지 뷰티 리빙 크림 수분 폭탄 크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촉촉한 것은 물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수분 탄력 크림. 피부의 자연스러운 방아 매커니즘을 되살리는 리포바살러스 퍼민트 성분과 피부가 오랫동안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해 피부에 생기와 탄력을 더한다. 50ml 14만원. 문의 02-3440-2706. *by 에디터 권유진*

SK-II 피파라 에센스 핑크 리미티드 에디션 플라워 알라스트를 보듬어 세겨 화사해진 피파라 에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피파라 특유의 냄새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요즘같이 기온이 높아져 피부에 열이 오를 때 에센스를 화장함에 충분히 적셔 팩을 하듯 얹어주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215ml 19만9천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김지혜*

랑콤 블랑 엑스투르 쿠션 컴팩트 내추럴 베이지 여성스러운 패키지가 돋보이는 제품. 가벼운 메이크업을 선호해 쿠션 타입의 컴팩트를 즐겨 사용하는데, 다른 쿠션 컴팩트와 달리 눈으로도 촉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번 덧칠해도 전혀 묻치지 않고 화장이 두꺼워지지 않았다. 14g 6만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김지혜*

클린스 크림 마스크트 보디라인을 바짝 관리해야 할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탄력 없이 출렁이는 피부는 운동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 복부, 팔뚝 등의 고질적인 군살을 제거하고 보디를 매끄럽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크림에는 지방 축적 속도를 늦추는 양귀비 추출물이 담겨 있다. 꾸준히 사용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에디터 역시 분별해냈다. 200ml 7만8천원대.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권유진*

메이크업 클렌징 인텐서 현존하는 클렌징 디바이스 중 최상 기술력을 갖춘 것은 물론 자극을 줄겠다는 점이 가장 끌렸다. 직접 사용해본 나이에 사용해도 다른 브랜드의 제품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극이 덜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안전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리프팅 마사지 앰플리케이터는 매일 사용할 정도. 20만원대. 문의 080-850-5454. *by 에디터 권유진*



# a beautiful Journey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지닌 에너지, 아모레퍼시픽의 고유한 감성과 헤리티지를 경험하기 위해 떠난 아름다운 여행. 비움과 채움을 교대로 경험하며 시간과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싱그럽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 하늘이 허락한 단 한 번의 시간, 첫물 녹차의 고귀함

상쾌한 바람을 품은 제주도의 4월, 이 아름다운 계절은 신선함 그 자체로 다가와, 잠시나마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묘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이 기운을 담은 한라산 기슭 녹차밭의 어린 싹들, 파릇파릇 돋아난 이 새순이 생명력과 에너지를 머금은, 아모레퍼시픽의 최고급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의 주원료다. 제주도는 섬 지형의 특성상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연중 고온 다습해 연평균 기온이 14℃로 유지되기 때문에 차밭이 1년 내내 얼지 않고, 한라산 기슭은 일교차가 커서 안개가 자주 끼 차 재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었다. 이 제주도 한라산 쪽대기의 맑고 깨끗한 눈이 녹아 흐른 물을 먹고 자란 첫잎은 차 고유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한겨울을 지나고 봄에 새로 피어나는 새순에서 얻는 첫물 녹차에는 뿌리에서 끌어올린 한라산의 맑은 정기와 영양분이 그대로 응축되어 담겨 있다. 그야말로 '하늘이 허락한' 1년 중 단 한 번의 시간, 첫물 녹차가 귀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뷰티 기업으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녹차를 직접 재배하고 차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 아모레퍼시픽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의 봄에 한라산 기슭에서 새로 나온 어린 싹들을 일일이 손으로 따서 만든 첫물 녹차를 이용해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을 만든다. 첫물 녹차는 1년에 단 한 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 기간인 청명(4월 5일)과 곡우(4월 20일) 사이의 단 15일 동안만 새순을 골라 한 잎 한 잎 정성으로 거두는 녹차. 그 때문에 이러한 첫물 녹차는 녹차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여겨지는 귀한 원료다.

### 비움과 채움의 타임리스 리추얼로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꿈꾸다

지난 4월 9일, VIP는 물론 세계적으로 저명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까지 참석한, 1박 2일 여정의 아모레퍼시픽 타임리스 리추얼(Timeless Ritual) 제주도 이벤트는 젊음을 되돌리는 데 최고의 원료이자 자연의 선물인 녹차가 자라나는 제주의 환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정수인 타임리스 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비움과 채움을 테마로 한 요가와 명상, 럭셔리 스파 등 다양한 체험은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생각하게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귀한 원료인 첫물 녹차를 직접 손으로 따는 체험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특별함으로 다가왔다. 손에 와 닿는 어린 녹차잎은 생명에 대한 경이감과 자연의 신비로움,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따뜻한 에너지를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위한 의식, 그리고 단순히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음미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노력하는 과정. 타임리스 리추얼을 통해 타임리스 뷰티를 찾아가는 짧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 새로운 헤리티지가 되다,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Time Response Skin Renewal Creme)은 아모레퍼시픽의 최고급 안티에이징 라인인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의 대표 제품. 지난 2004년 출시된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링 아이템이다.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의 주원료인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의 주원료인 첫물 녹차와 아시아인 보태니컬 성분인 다양한 피부 노화의 징후를 빠르게 케어할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만의 독창적인 효능 물질 전달 기술인 피토 플루이딕스(Phyto Fluidics) 기술을 적용한 타임 코딩 시크릿(Time Coding Secret) 노화우회 효능 물질을 피부 속 깊숙이 전달해준다. 또 싱그러운 12가지 녹차의 정수에서 추출한 효능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욱 효과적인 토털 안티에이징 케어를 선사한다. 50ml 48만 원대. 문의 080-020-5757



1 따사로운 봄을 맞이한 아모레퍼시픽 서민다원 녹차밭의 첫물 녹차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 2 롯데 이트빌라스는 온전하고 완벽한 아모레퍼시픽의 타임리스 테마로 가득한 힐링 콘서트로 VIP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맞이했다. 3 소중한 색다른 시간이었던 첫물 녹차 채취 체험. 경이로움마저 느껴지는 첫물 녹차의 생명력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의 가치를 세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4 아모레퍼시픽 리추얼 행사는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힐링 이벤트였다. 5 제주도의 봄, 서민다원, 첫물 녹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제주와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듯하다.





# 베트남의 우아하고 시려 깊은 호텔들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테스트베이션은 베트남이다. 중국,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서 영향을 받은 다채로운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뿐 아니라 최대 상업 도시이자 프랑스인의 휴양지였던 다낭, 시골로를 타고 돌아보는 세계문화유산 도시 호이안도 빼놓을 수 없는 머스트 비짓 플레이스. 과거 사이공으로 불렸던 호치민에서는 활기찬 남국 향구의 낮과 밤을 경험할 수 있다. 베트남 역사와 낭만을 집약한 각 도시의 이국적 호텔에 당신을 초대한다.

## 하노이, 꽃과 호텔의 도시

향기라면 제스민, 기품이라면 하노이 사람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하노이(Hanoi)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로로 길게 뻗은 베트남 국토 북부에 위치한 도시이자 수도인 하노이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길가에서는 남국의 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봄에는 쓰여꽃, 가을에는 우유꽃, 겨울에는 연꽃이 피는 등 1년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하노이에는 응옥하, 응이팜, 팜바 서쪽 호수 주변에 많은 꽃재배 마을이 있으며,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품종과 교배하거나 새롭게 품종을 개발하는 화훼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동네 곳곳에는 화훼 마을과 남부에서 올라온 온갖 꽃이 만발한 전통 꽃 시장이 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부티크는 물론이고, 아오자이를 입은 여인의 장바구니와 그 유명한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쓴 소녀의 자전거에도 어김없이 향기로운 꽃다발이 실려 있다. 뒤늦게 시작된 급작스러운 현대화에도 여전히 꽃과 낭만을 사랑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여유가 부러운 순간이다. 하노이에서 꽃은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품이다. 하노이 사람들의 타고난 기품은 이렇게 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하노이의 첫인상을 ‘꽃’이라는 한마디로 단정 짓기에는 부족하다. 대규모 건축되었을 것이 분명한 19세기 프랑스 스타일의 작고 사랑스러운 건축물 사이로 꽃이 만발해 있다. 그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수천 명의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는 거리를 질주하고, 버드나무 우거진 수백 개의 작은 호수가 도시를 수놓고 있다. 하노이의 정취를 100% 만끽하기 위해서는 가장 하노이다운 호텔에 투숙하는 것은 어떨까? 베트남의 과거와 현대를 한 번에 감상하기에 호텔만 한 것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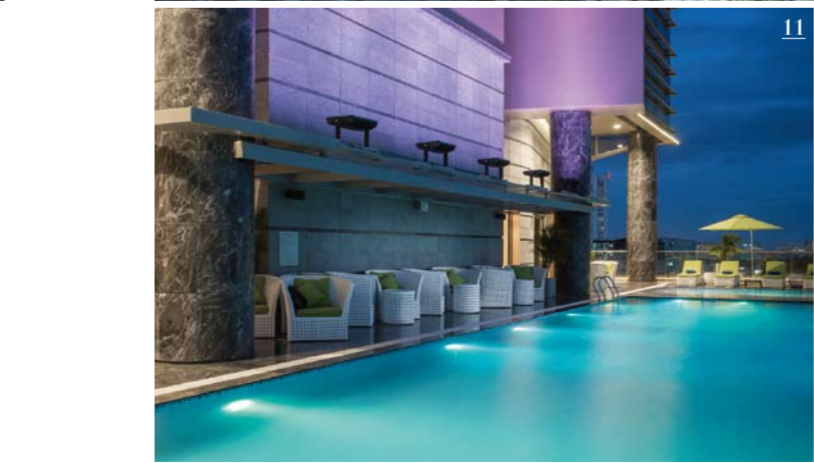
## 소피텔 메트로폴 하노이 레전드, 풀만 하노이의 비밀 공간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투숙하는 호텔은 어디일까? 미국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프랑스 배우 카트린 드뇌브, 덴마크의 마그레테 여왕도 같은 호텔의 VIP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모든 왕족과 명사가 묵는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닌 이 호텔은 하노이 중심부에 자리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Sofitel Legend Metropole Hanoi)다. 1901년에 문을 연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는 그 우아한 외관만 보아도 누구나 매료될 만하다. 하노이 구시가지에 위치하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양옆으로 2개의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역사를 담은 메트로폴 왕은 고전적인 프랑스 건축물과 베트남 전통 양식이 결합된 인테리어가 특징이고, 현대적인 오페라 왕은 역사와 모던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레노베이션되었다. 호텔 1층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자리한 라 테라스(La Terrasse)는 마치 과거의 파리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전망 좋은 카페다. 전형적인 파리처럼 스타일리시지만 베트남의 전통도 듬뿍 묻어나는 오묘하고 매력적인 곳이다. 클래식한 가구와 천장에서 돌아가는 엔틱 선풍기를 배경으로 하노이 거리를 바라보며 페리에 주에 샴페인을 한잔 음미해보자. 호텔 역사만큼 오래된 프렌치 레스토랑 ‘르 보리외(Le Beaulieu)’와 이탈리아 레스토랑 ‘안젤리나(Angelina)’도 기억해두시라. 특히 ‘르 보리외’는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맛보는 선데이 브런치로 유명하다. 하노이의 감성적인 일요일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에 폭탄 대피소(bomb shelter)가 있다는 것이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과 미국이 벌인 전쟁에서 실제 사용된 대피소인데, 당시 배우 제인 폰다와 같은 특급 게스트들이 이곳에 숨었다고 한다. 병기는 전쟁이 끝나고 환동반 봉쇄되었는데, 2012년 다시 오픈되어 투숙객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베트남인들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www.sofitel-legend.com/hanoi).

하노이에서 최근 새롭게 선보인 풀만 하노이(Pullman Hanoi)는 여행자를 위한 호텔이다. 외관은 유럽의 성에서 영감을 얻어 클래식하지만, 42개의 객실과 레스토랑은 젊고 활력이 넘친다. 21세기 새로운 베트남을 상



1, 2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부부 등 해외 명사들이 하노이를 방문하면 꼭 투숙하는 아름다운 호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의 샴페인 모습. 3, 4 하노이 오페라극장 앞에 위치한 환상적 전망의 호텔 드 로페라 하노이. 5, 7 베트남 중부 해변에 위치한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 최근 레노베이션을 마쳐 깔끔하고 편안하다. 6, 9 19세기 베트남의 수도였던 후에에 위치한 라 레지던스 후에 리조트 & 스파. 8, 10, 11 베트남 남부 호이안에 최근 오픈한 풀만 사이공 센터. 호치민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해보 벤 탄 시장과 노트르담 성당이 가깝다.



징하는 비비드한 색감과 현대적 질감의 소재로 모던하게 구성되어 있다. 풀만 하노이에도 역사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 바로 높은 굴뚝이다.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표현이 다소 어울리지 않을 지 모르지만, 이곳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연기가 나지 않는 풀만 하노이의 상징적인 조형물이지만, 과거 이곳이 베트남의 발전에 이끌린 공장 지대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두었다고 한다. 굴뚝은 아자수 우거진 야외 수영장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풀만 하노이의 마스코트로서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어로 ‘굴뚝’이라는 의미의 호텔 2층 ‘라 침니 레스토랑(La Cheminée Restaurant)’에서 맛보는 식사를 더욱 의미 깊게 해준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하노이 전통 요리에서부터 인터내셔널 음식까지 두루 서브된다. 한편 여행자를 위한 호텔이나만큼 스파 라운지(spa lounge)와 피트니스 라운지(fit lounge)가 산뜻하다. 베트남의 모든 도시에서는 1년 내내 야외 수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나 하노이 거리를 바라보면 서 물살을 갈라보자(www.pullman-hanoi.com).

드 로페라 하노이 호텔(Hotel de l'Opera Hanoi)은 위에 소개한 두 호텔과는 또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한 매력적인 로케이션과 경량한 컬러, 부드러운 패브릭 인테리어로 무장한 부티크 호텔이다. ‘오페라의 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우아한 호텔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테라스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바라보는 오페라 하우스는 그 자체로 매혹적이다(www.hoteldelopera.com). 풀만 하노이와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 드 로페라 하노이는 모두 하노이의 랜드마크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오페라 하우스, 히스토리 뮤지엄, 호안 키엠 호수(Hoan Kiem Lake), 문학의 사원(Van Mieu Quoc Tu Giam), 연꽃 수상 인형 극장(Water Pupper Theatre), 호치민 기념관(Hochiminh Mausoleum), 원 필라 파고다(One Pillar Pagoda)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연꽃 수상 인형 극장에서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민요를 라이브로 들으며 전통 농업과 전설 속 용, 선녀를 표현한 사랑스러운 수상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 다낭의 레이디 부더를 만나다

베트남 북부 도시인 하노이를 떠나 중부 해변으로 내려오면 다낭이 펼쳐진다. 다낭은 전형적인 휴양 도시지만 인근에 16세기에 번성한 무역항이었던 고도 호이안(Hoi An)과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후에(Hue)가 있어 단순한 휴양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름운 사원(Chua Linh Ung)의 레이디 부더(Lady Buddha)는 다낭의 랜드마크다. 마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있는 그리스도상처럼 우뚝 솟아 다낭의 해변을 감싸 안고 있는 이 거대한 조형물은 이곳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기원하는 듯하다. 레이디 부다가 마주 보이는 해변의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Pullman Danang Beach Resort)’는 최근 레노베이션을 마친 우아한 호텔이다. 바로 해변가에 위치하기에 수영과 선滩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리조트 바로 앞으로 길게 뻗은 해변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현지인 마을이 나온다. 순박한 눈동자의 베트남 젊은이들은 장난 삼아 작은 거북이를 잡는다며 모래시장을 파헤치고 있고, 검게 그을린 어부는 나무로 만든 동그란 전통 배 ‘뽕’을 타고 작은 물고기들을 그물에 담아 올린다. 여행객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베트남 사람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오면 스파와 베트남 전통 식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는 투숙객을 위해 호이안, 후에 투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인근에 3개의 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www.pullman-danang.com). 다낭을 떠나기 전에 하루 정도 인근에 위치한 후에의 ‘라 레지던스 후에 리조트 & 스파(La Residence Hue

Resort & Spa)’에 묵는 것도 좋겠다. 19세기 베트남의 수도였던 후에는 9백여 개의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중 16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인받았다. 라 레지던스 후에 리조트 & 스파는 강변(Perfume River)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압권이다(www.la-residence-hue.com).

## 미스 사이공의 도시, 호치민

북부의 하노이, 중부의 다낭을 거쳐 베트남 남부로 내려가보자. <연인>의 소설가 마르그리트 뒤라가 사랑했던 매공장 인근의 도시 호치민(Hochiminh). 원래 ‘사이공(Saigon)’으로 불렸으나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의 이름을 따 1976년 ‘호치민’으로 개칭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이공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이고, 얼마 전 오픈한 ‘풀만 사이공 센터(Pullman Saigon Centre)’ 호텔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 풀만 사이공 센터는 여전히 놓지 않는 건물이 미덕인 호치민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로, 객실과 레스토랑에서 내려다보는 호치민의 전망이 하이라이트다. 호텔 가장 위에 위치한 ‘코발트 루프톱 레스토랑(Cobalt Rooftop Restaurant)’은 호치민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며, 야외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어 리셉션이 열린다. 호치민의 호텔 레스토랑 중 전망이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호텔의 외관은 모던하지만 로케이션은 호치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베트남의 에너지를 만끽하기에 적합하다. 걷는 것도 좋지만 시클로 혹은 오토바이 투어도 모두 가능하다. 그 유명한 벤 탄 시장(Ben Thanh Market)과 사이공 오페라 하우스(Saigon Opera House)가 가깝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건축된 노트르담 성당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중국식 시장 티엔어후도 명소다. 베트남을 기억하는 데 프랑스, 중국 식민지 시대의 향수는 빼놓을 수 없는 모티브가 된다(www.pullman-saigon-centre.com). 이렇듯 누구나 베트남에 가면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역사, 순박한 사람들과 차분한 물가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노후를 베트남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베트남을 직접 경험해보다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모던, 소박함과 럭셔리, 극과 극 경험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의 이국적인 호텔에서 가라 앉았던 영감을 일깨워보자. 참고 www.accorhotels.com, www.ambatel.com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출도라 자자



MONT  
BLANC 

## Montblanc Heritage Spirit Moonphase and Hugh Jackman

몽블랑 헤리티지 스피릿 문페이즈와  
휴 잭맨

### Crafted for New Heights

The Montblanc Heritage Spirit Moonphase features the moonphase complication in the spirit of traditional fine watchmaking. Housed in a 39 mm 18 K red gold case, the self-winding Calibre MB 29.14 indicates the moonphase in a crescent-shaped aperture, making this refined timepiece a true lifetime companion. Visit [Montblanc.com](http://Montblanc.com)

